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90 1982년 8월 2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August 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UG 4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말다툼끝에 살해했다"

여인토막사건 청문회 전남편 김일천 범행시인

시체 옷장에 숨겼다가 나중에 절단
「뉘우친다」· 유죄인정되면 사형까지

◇… (라스베가스—구자민통신원) 이혼한 부인을…◇
◇…토막살해한 혐의로 현재 라스베가스 경찰당국…◇
◇…에 구속중인 김일천(35)은 28일 하오 라스베…◇
◇…가스 클라크카운티 제5법정에서 열린 예비청…◇
◇…문회에 출정,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

이날 존·맥그로티판사 주재의 청문회에서 김은 검찰심문과정을 통해 『지난 15일밤 이혼한 부인 김인애씨(31)의 221 플라워스트릿 아파트에서 김여인과 말다툼끝에 격분, 집안에 있던 망치로 머리를 때려 실신시킨후 계속 목을 졸라 숨지게했다』고 범행당시를 진술했다.

그는 또 『시체를 옷장속에 일단 숨긴후 다음날 8세의 장녀 수영양을 비롯한 3명의 아이들을 학교에 내보낸뒤 부엌칼로 시체를 절단, 이 토막시체들을 신문에 싼후 부근 쓰레기통에 내다버렸다』고 말했다.

김은 시체를 토막낸 것은 김여인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회색줄무늬상의, 검게 자란 수염등 덥수룩한 차림으로 출정, 범행과정을 밝힌 김은 『범죄사실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청문회는 27일 하오에도 열렸으며 클라크법원 당국은 17명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김은 유죄가 인정될경우 사형선고를 받게될 것이라고 법원관계자들은 내다보고있다.

◇법정에 선 토막살인 혐의자 김일천—27일 라스베가스 클라크 카운티법정에 출정한 김씨는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친다」고 심경을 밝혔다. (라스베가스— 특별전송)

"원화 평가절하해야"

IMF 제안, 한국경제 희망적

(제주28일=연합)한국이 수출을 촉진시키고 국제수지균형의 적자를 줄이려면, 원화를 실질적수준으로 평가절하해야 한다고 국제금융전문가가 제안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 라잔씨는 현행환율과 실제원화 가치에는 격차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환율을 임의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했다.

라잔씨는 한국 경영인협회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IMF와 세계은행은 여러번 원화의 평가절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국의 지도자급 경영인들에게 전달한 강연에서 라잔씨는 한국정부의 80년대의 「제2경제도약」정책은 희망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제2도약의 결과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60·70년대에 달성됐던 경제성장만큼 찬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도봤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지나26일 아삼보 형무소 폭동때 죽은 3명의 교도관들의 관이 29일 쾌백 쌩·앤드·플랭의 교회밖으로 운구되고 있다. (관계기사 2면)

체육대회 2주 앞으로

복권액보다 많은 상품·교민 적극협조

8월14일 이토비콕 센테니알파크에서 제2회 캐나다체육대회를 2주앞둔 체육회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체육회는 31일까지 일단, 참가신청을 마감키로 했으나 참가폭을 넓히기 위해 시설및 시간이 허용되는대로 계속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30일 현재 각 교회팀등 10여개 단체팀의 참가신청이 들어왔다.

체육회는 체전기금을 마련키위해 이번 대회에서 복권을 발매키로 했으나 상품기증자들이 쇄도, 복권발매액보다 상품액이 능가하는 기현상도 보였다.

상품내역중에는 서울여행사와 신세계여행사의 서울왕복항공표, 미도파의 여우목도리등 푸짐한 상품이 걸려있어 3달러짜리 복권가치는 충분하다.

이외에도 이병권체육회장은 사재에서 5천달러를 희사, 체전경비로 보탤 예정이다.

작년도 제1회 대회때의 경험등을 살려 더욱 알찬 대회를 꾸미려는 이병권체육회장은 "이제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체육대회직후 스타디엄에서 거행될 교민위안의 밤에는 코메디안 배삼룡, 민요가수 최정자, 「야생마」의 김하정, 「사나이 부르스」의 배성등이 초청된다.

이장성, 장기철씨가 주동이 된 광고물, 시설제작등 체육회 임원외에도 많은 교민들이 협조하고 있다.

블루어번영회 부회장 변의섭씨 조카 변재목(22)양은 체육회사무실에서 자원봉사 근무하고 있다.

PLO, 철수합의

끈질긴 공략끝에

(베이루트)이스라엘군에 포위되어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버티고 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29일 베이루트에서 무장 총철수한다는 내용으로 한 6개조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레바논국영 아랍통신이 보도했다.

이같은 발표는 베이루트에 남아있는 야세르·아라파트등 PLO게릴라 6천명의 총철수 방법에 관해 필립·하비브 미국특사가 레바논측 중재자들과 만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아랍연맹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 합의서의 내용이 이스라엘측의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PLO대표 아라파트측근 소식통들은 약5천명의 PLO게릴라가 약 3주동안 이집트, 시리아, 이락및 요르단으로 철수할 것이나 나머지 1천명의 행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엔에서도 PLO가 베이루트 서안에서 무력을 완전철수키로 합의했음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확인됐다.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금주의 행사▷ (8월2일~8일)

◆2일(월) 상오9시 한인실업인협회 친선골프대회
곳: Richmond Hill Golf Club
연락처: 533-7923

◆7일(토) 상오11시 브라질 "봉디아"친목회
곳: Sunnybrook Park(축구장옆 마지막주차장)
연락처: 759-3583(성용창)

◆7일(토) 상오11시 벡커프렌차이스 임시총회및 야유회
곳: Sunnybrook Park
연락처: 755-3632(김병진)

◆7일(토) 상오11시 대사배친선골프대회
곳: Carring On Golf Club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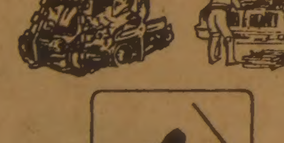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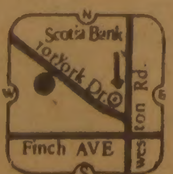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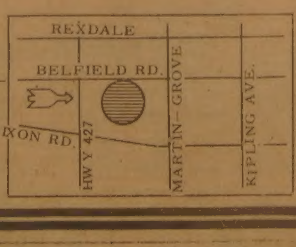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 사고차량 완전수리
● 페인팅(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FALLIS U-SAVE
CASH & CARRY
◇◇ 스페샬 ◇◇
◎ Pepsi~Cola(can 10온스×24) $5.99
◎ Diet Pepsi (〃) $5.99
◎ Coca-Cola (〃) $5.99
◎ Sunpac Juice $7.50
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 영업시간 : 월~금(오전8시—오후4시)
토 (오전8시—오후2시)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각종…
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길 바람
* 주택, 대지,
* 이민이나
* 좋은 …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패밀리·닥터 도합 3명
왕운린씨 3일 개업

토론토에 패밀리·닥터(GP)가 1명 더 늘어 도합 3명이 됐다.

온타리오북부 코크레인(Cochrane)서 2년반동안 개업한 왕운린씨(35)가 오는 3일 600 셔본·스트릿(셔본지하철정거장 건너편) 402호실에서 이전개업한다. 이 건물에는 패밀리·닥터 최등영씨, 치과의사 원영수씨, 심리상담 김보경박사등이 사무실을 가진 의료빌딩이며 인근 로즈데일지역에는 역시 패밀리·닥터인 황대연씨가 있다.

왕씨는 닥터·최와 같은 우석의대(현 고려대의대)를 71년 졸업하고 서울성심병원 외과에서 레지던트를 지내다 73년2월 캐나다로 이민했다.

이민후 의과교육을 더 받지 않고 도착 4개월만에 닥터스·하스피틀(병원)에서 !턴근무를 시작, 1년후 /4년에는 런던 웨스톤·온타리오대학으로 옮겨 5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겪었다.

패밀리·닥터가 된 왕씨는 정부의 무의촌대책 지원을 받아 1만명 인구를 가진 코크레인으로 옮겨 레이디·민토병원서 근무했다.

그는 약리실험실장, 이민국 위촉 신체검사관을 겸임하다가 "외로움에 지치고", 또 "자녀교육을 위해", 토론토 교포 곁으로 내려온 것이다.

왕씨는 한영순씨와의 사이에 1남2녀가 있다.

화교의 자손이지만 한국서 태어나 한국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인과 똑같은 왕씨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캐나다 의사자격증을 받으려면 치과의사 경우와는 달리 이곳 의대를 졸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곳서 임상경험 2년을 마치고 국가의사시험(LMCC)에 합격하면 개업의가 될 수 있다. 임상경험은 인턴 2년, 또는 인턴1년+레지던트1년을 마쳐야 한다. 캐네디안은 2년간의 의예과를 마치거나 4년제 이공계 대학 졸업자는 4년제 의대에 입학, 졸업과 동시 국가고시를 볼 수 있고 합격자는 인턴 1년만 마치면 개업의가 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은 인턴 1년후 국가고시(FLEX)에 합격하면 개업하므로 캐나다보다는 규정이 덜 까다롭다.

닥터·왕의 진료시간은 월~금 상오10~하오7시, 토요일은 상오11~하오3시. 전화는 968-1543.

국립민속무용단 10월3일 캐나다에

(서울30일=연합)국립민속무용단이 캐나다를 비롯한 미주순회공연을 위해 2개월간의 여행길에 올랐다.

국립민속무용단은 오는 8월3일부터 10월14일까지 12개 국가, 22개 도시를 돌며 50여회 공연을 갖는다.

이번 미주순회공연은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도 여름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한국의 민속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이다.

민속무용단은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페루, 칠레, 우르과이, 브라질을 거쳐 10월3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에서 공연한후 미국에서는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공연한다.

김치사가는 일본인늘어

(서울30일=연합)김치의 맛을 즐기는 일본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의 30%~40%가 귀국시 김치를 사갈 정도의 〈김치붐〉에 힘입어 김포공항에는 이미 4개의 김치판매소가 생겼다.

김치의 가격은 1Kg들이 플래스틱통에 미화 $5.40,

형무소 살인·폭력 난무
섹스영화, 나체쇼, 마약, 독약도

지난 25일 수감자들의 난동학살사건으로 피바다가 된 아샤보형무소는 죽은 3명의 교도관과 2명의 난동주범 죄수들의 피가 마를 새도 없이 26,27일 연이은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살벌한 공기가 감돌고 있다.

수감자들은 25일사건 이후 모든 옥외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및 가족면회가 취소되고 감방에만 갇혀있게 되자 이에 반발, 창문, 싱크대, 책상, 메트리스등을 닥치는대로 부수고 찢고 했다. 형무소긴급경비반은 최류탄을 발사 이들을 겨우 진압했다.

어떤 수감자는 감방밖의 작은 틈새로 백기를 흔들며 "우리는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들이(교도관) 우리를 고문했다"며 아우성쳤다.

형무소장 앙드레·르마리에는 "우리는 죄수들에게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먹지 않는다고 버틸때야 별 수 없다"며 이같은 불편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르마리에소장은 지금까지 5명의 수감자가 폭동사건으로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감자 전원이 난동을 중지하고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자들을 위한 모든 활동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수당의 베노·프리센 연방의원은 연방의회에서 토프리스댄스(가슴을 노출시킨춤)와 포르노영화(음란영화)가 연방형무소 수감자들에게 보여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은 마약, 독약까지도 입수한다고 주장했다.

프리센은 "미성년포르노"(Kiddie Porno)를 포함한 포르노영화가 적어도 아샤보와 캐나다서부지역 형무소 한곳에서 상영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농도가 짙고 성적충동을 유발시키는 섹스영화는 형무소에서 상영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검찰총장 로버트·카플란은 기자회견에서 수감자로 구성된 수감자위원회가 상영될 영화를 선정, 영화상영에 드는 경비는 그들의 돈으로 부담된다고 말했다.

그는 형무소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이미 검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길거리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형무소에서도 상영가능하다는 일반원칙론을 내세웠다.

장·폴·두가스 퀘벡주교도청 부커머셔너는 아샤보형무소측은 수감자들의 마약과 무기소지 여부를 철저히 탐색하고 있는 중이라며 완화된 방문권리와 제한된 탐색절차가 수감자들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중죄수들만 수감하는 아샤보형무소는 전자장치로 조정되는 육중한 철제문등 최대보안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 69년 개소한 이래 크고 작은 폭동및 인질살인사건등으로 지난 6년동안 20명이 살해당했다.

르마리에소장은 "우리는 폭력적인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폭력을 줄이려고 노력하나 폭력을 조절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라고 말했다.

〈카메라 상식〉

「라이카」 캐나다에서도 생산 호황중
수동식, 90%는 일본등에 수출
18개 렌조의 M4-P $천 홋가

카메라·맨들이 동경하는 135mm카메라 라이카(Leica)가 서독에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수년간 생산되고 있다.

온타리오소재 미들랜드(Midland)의 다운타운에 있는 언스트·라이츠(Ernst Leitz)회사는 년간 2천만달러어치의 라이카를 생산, 이중 90%를 카메라의 본고장 일본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한다.

30년 역사의 이회사는 지난5년간 「카메라의 롤스·로이스」라는 M4-P레인지화인더(Range Finder)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였다.(금년말께의 캐나다 에베레스트산 원정대 등정때도 라이카가 촬영을 맡는다.)

"독일 라이츠회사는 8년전 카메라 생산은 완전 중단했으나, 우리는 이곳서 생산을 계속했다"고 월터·쿠룩 캐나다 라이츠회사 사장은 말했다.

이 회사는 불황을 모르고 계속 확장, 직원수가 6백명에 육박한다.

라이츠회사의 사고 방식은 간단했다. 세계 경제가 불황에 시달리더라도 세계에는 항상 최고급 사치품을 사고자 하는 부유층이 있다는 것이다. 새 멜세데스·밴스차를 배달 받으려면 2년여를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이, 아무리 전자장치가 복잡한 자동식 일본제 카메라, 인스턴트·카메라, 폴라로이드등이 발전하더라도 전통적인 수동식 라이카의 왕좌적 위치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18개의 렌즈를 조합해서 만든 M4-P는 소매가격 1천달러에도 불구, 특유의 고객이 있는 것이다.

연간 10만개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세계 카메라 시장의 불과 1%를 점유해도 쿠룩사장은 대단히 만족한다.

7백개의 부품은 컴퓨터로 디자인, 최신기술로 만들어지더라도 이들을 손으로 조립하는 전통에는 변함이 없다.

독일 본사는 2차대전중 공장이 문닫는 곤욕을 치루고 나자 독일이외에도 공장을 가져야한다고 판단, 1952년 시장성이 좋은 북미에서도 종업원들의 이직율이 적은 온타리오 미들랜드에 제2의 공장을 설립한 것이다.

프리즘대신 전통적인 거리측정기 레인지·화인더(Rangefinder)를 가진 라이카는 자동 노출계, 뱃터리, 전자식 샤터등이 없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복스, 웨이곤, 벤츠등과 같이 변화를 싫어하는 독일 기질을 닮은 라이카는 최근 수년간 구리로 된 겉질을 알루미늄으로 바꾼 것 외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우리는 생명이 최소20년이 안되는 부품은 쓰지 않는다"고 쿠룩사장은 말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라이카 카메라를 만드는 라이츠 캐나다회사의 쿠룩 사장이 여직원과 함께 완제품을 검사하고 있다.

〈재미 600연예인의 현주소〉

로스엔젤레스편

⑵그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나?

북미에서 가장많은 20여만명의 교포가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 곳이라 연예인의 수도 가장 많다. 비공식추산이지만 각분야에 걸쳐 2백50여명은 된다. 국내서 한때 자기시대를 가졌던 스타급배우가 수만도 수두룩하다. 해외 공연을 나간 연예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에 오는것이고 미국에 와서 결국은 로스앤젤레스에 주저앉게 된다고 할만큼 많은 연예인이 이곳에 살고있다. 심하면 서울에서 소식이 끊긴 연예인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더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이다.

최근까지도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던 인기배우겸 탤런트 홍세미가 이곳에 있다. 교포인 남편 방대용씨가 레스토랑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78년부터 재결합했다. 홍세미는 한인사회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왕년의 미인배우 주연과 성우 천선녀도 이곳에 살고 있는데 홍세미가 만나는 유일한 동료연예인들이다.

또 신성일감독의 영화 「어느소녀의 사랑이야기」에서 데뷔해 청순한 마스크로 각광을 받았던 여우 나오미도 남편과 함께 쇼핑센터를 하며 착실히 살고있다.

아직도 국내에서 좋은 작품이 있다면 한편 정도의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배우로서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있다.

또 탤런트 원영현도 있고 「만추」의 시나리오 작가 김지헌, 배우 이동민도 있다. 배우 강문도 한때 방송국 경영에 참여하다 요즈음은 살림만 하고있다. 국내서 제일의 조명기사로 이름을 떨치던 김동포, 감독 홍의봉, 원로 영화미술인 이봉선, 기획자 이익태, 프러듀서 김일환, 촬영기사 김재영등이 있다.

태창영화사 부사장 김경수씨도 영화수출입을 위해 이곳 지사근무로 나와있어 「한미영화학회」(회장 이동민)를 통해 영화인들끼리 매달 한번씩 만나 국내 영화계의 장래와 현안문제를 얘기하기도 한다.

또 PD 전홍식씨가 만든 「재미한국영화인회」도 있어 이곳서도 2개의 협회가 있는 느낌인데 가을께 통합을 하겠다고 한다. 이밖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있는 영화인은 모두 60여명정도나 된다.

가수로는 동양제일의 저음가수라던 남일해, 여자배호로 인기를 얻었던 강소희, 「사랑」의 김하정, 진미령, 이장희, 이수만, 투코리언즈의 손창철, 이승연, 동방성애, 이석 한웅, 송춘희등 쟁쟁한 스타급이 즐비하다. 원로급으로 송민도, 심연옥, 장세정등이 있다.

남일해는 나이트클럽을 차릴 준비를 하고있고 강소희는 소희살롱이라는 자그마한 술집을 준비중이다. 김하정은 요즘 노래를 쉬고 있으며 진미령은 보루네오가구지점의 카운터로 일하면서 LAC대학의 교양학부에서 공부를 하고있다. 이수만은 처음 공작살롱이라는 곳에서 노래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벨리 칼리지의 영어교양학부에 다니고 있다.

유명 연주인으로는 김광수, 송민영이 카바레를 하고 있고 작곡가 김학송은 살롱서 피아노를 치다가 요즘은 가수지망생 지도에 나서고 있다. 플루트의 주자로 유명한 정성조는 UC 버클리에 유학을 왔으나 지금은 포기하고 나이트클럽무대에 서고있다.

코미디언 배삼룡은 무용을 하는 기영숙씨와 결혼해 영주권을 따고 이따금 공연을 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배삼룡과 함께 와서 주저앉은 코미디언 홍해, 김영남도 모두 이곳 교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얻었다.

이상해는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연주인, 코미디언, 가수등 연예인은 2백여명에 가깝다. (계속)

◆배삼룡·홍해등이 81년 토론토를 다녀갔으나, 전부 미국에 주저앉고 말았다.

기증된 이민사자료
비 이민문헌등 1백건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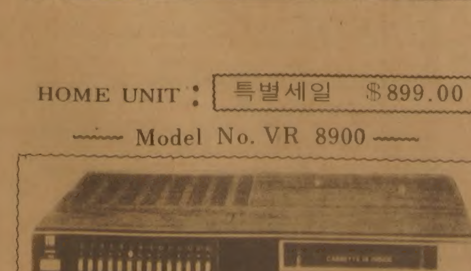
(28일자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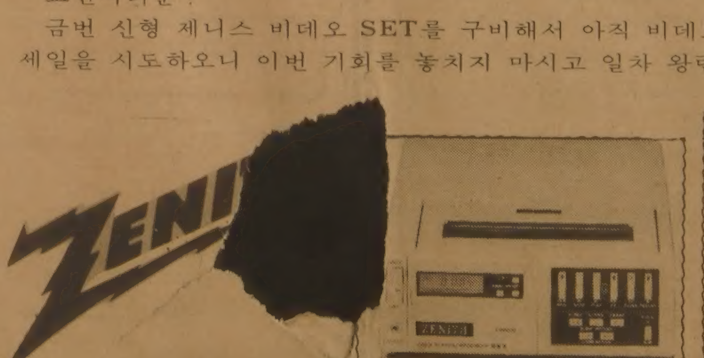
20)「추방된 사람들」(제임스·조이스, 지선주 역)
21)「기독교사상」(서울) 77년 4, 5, 7~12월호 78년 1~8월호 79년 3, 6, 7, 10, 11, 12월호 80년 1월호
22)「창조」 2호(74.12) 위니펙한인교회
23)「새벽」 창간호(77.4), 2호(77.11) 몬트리얼한인연합교회
24)「가나안」(74년 10월호, 76년6월호, 78년2월호) 밴쿠버한인연합교회
25)총회보고서(76년) 밴쿠버한인연합교회
26)「밀알」(77.5) 퀸즈한인교회
27)박규봉 성가독창회 프로그램(78.12.23)
28)한인청소년합창단 창단공연 프로(78.5.27)
29)한인합창단 창단음악회 프로(79.12.8)
30)인권옹호위 창립취지(78.11)
31)청룡회 연보(12호, 76.1, 8, 78년1월호 교인주소록
32)아가페운동 1호(78.2) 뉴욕
33)제3회 김용순무용발표회 프로(82.6.12)
34)「한맘」잡지 5호(76), 4호(78.3), 5호(78.12) 토론토한인천주교회
35)교우주소록 (79.) 한인천주교회
36)연중행사계획표(79) 기타 주보들(천주교회)
37)「가람」 75.10(한인교회)
38)한인교회 뉴스레터(78년 9, 11, 12, 79년 2, 3, 4, 6, 8) 기타 주보등
39)「새한소식」 77년 4,6,7, 17호(77년),19,22,23,27,28,29,30호(79.6)
40)「푸른 초장」 77년 1,2, 3,5,6,7,9,10월호(제일장로교회 대학부)
41)「영락」 창간호(78.6), 2호(78.8) 토론토영락교회
42)교인주소록(78) 토론토영락교회
43)교우주소록(78) 토론토동부교회
44)한글학교 설립운영방안 동부교회
45)교인주소록(79년) 토론토중앙교회
46)「골고다」 창간호(77.10)·주보들(대한교회)
47)토론토한인장로교회 월보(68년7~12, 69년3~6월)
48)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79.5) 토론토한인장로교회
49)광야의 소리(77년 4.6월 78년4월) 선교교회
50)교회일람(77년) 한인장로교회
51)「개척자」(토론토한인장로교회)
52)「여호수아」(한인장로교학생회)
3호(77년), 4호(79년)
53)사업보고(77.78) 한인장로교회
54)교과과정및 예산(78.79) 한인장로교회학교
55)한인장로교회 교인생활수첩
56)한인장로교회 일람·주보등
57)「선구자」(토론토한인연합교회)
70년4월호, 71년4,7월호, 72년4,10,12월호, 73년4,8,11월호, 74년4,10,12월호, 75년4,11월호, 76년2,3,10월호, 77년2월호, 78년12월호, 79년1월호
58)연합교회 교인주소록(76년,79년)
59)연합교회 사업보고서(74,75,78년)
60)연합교회 새 교우를 위한 가이드(75년)
61)연합교회 봉사자수양회보고서(78년도)
62)연합교회 특별집회 찬송가(1), 수보등
63)교사강습회 프로그램(78년, 79년) 교회학교교사연합회
64)「세계선교」 창간호(77.7.1)—LA
65)「토일문예」 창간호(79.3)
66)동창회보(창간호 79.5), 2호(79.11), 5호(81.5)—온타리오 서울대동창회
67)회원명부(79년분)—(")
68)동우주소록(78) 토론토동우회
69)노인회보(창간호 75.1, 2호 75.6) 토론토 한국노인회
70)「상조」 5호(73.3) 밴쿠버한인회
71)회보(69.12.1) 토론토지구교민회
72)소식(7권2호 78년11월) 런던한인회
73)불교연구(불광사)
74)사업보고서(해밀턴지구한인회)—78년
75)업무보고서(토론토지구한인회)—78년
76)Association for Asian Studies(76.3.19)
77)Road to Peaceful Korean Unification(서울)
78)Professional Review(75~76)
79)Korea Seen from Abroad (No.Ⅶ) 77.9(서울)
80)East Asian Review(75년 봄호·여름호·가을호·겨울호, 76년 여름호, ??년 여름호)
81)Canada Asia Currents(79년 봄·여름호)
82)The Understanding of Korean Churches(by Paul S. Hyun 78.6.1)
83)Flying(by Kate Millett)
84)Under the Ribs of Death (by John Marlyng)(헝가리이민자의 아들이야기)
85)Beyond Reason(by Margaret Trudeau)
86)Korea(사진화보)
87)Stewardship Reaches Out
88)Mission Magazine(78.6)
89)Ting(1권3호 78년)
90)News Flash(Toronto Star 78.8.18)

Super 여름철 비데오 특별대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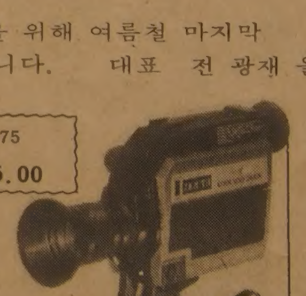
교민여러분!
금번 신형 제니스 비데오 SET를 구비해서 아직 비데오를 구입치 못하신 분을 위해 여름철 마지막 세일을 시도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표 전 광재 올림

HOME UNIT : 특별세일 $899.00
Model No. VR 8900





REG. $3,179.75
NOW. $2495.00



·24 HOUR AUTO RECORDER
·PICTURE SPEED SEARCH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 PORTABLE VIDEO
❖ RECORD & PLAYER WITH CAMERA(WIRELESS 무선)
❖ REMOTE CONTROL포함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한맘교육강좌〉

복합문화사회 의 한글교육

조 성 준 (토론토한인교육연구회장)

한국어교육 과 캐나다사회적응문제

반대로 말해 한국어를 잘하는 한국계 자녀들은 저절로 지능도 높아지고, 영어도 잘 배우고, 이곳 사회에서 적응도 잘할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같지 않다. 인간이 한 사회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언어이외의 태도, 지식, 가치관, 행동, 기타 요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한글교육을 무조건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 생기는 부작용도 생각해야겠다.

어느 한국인 목사가 지방에서 캐네디언 백인교회를 목회하면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기 위해 영어는 일절 쓰지 않고, 한국말로만 그 아들과 대화를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아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 들고, 대화할 것이 없게 되었는데, 하루는 백인할머니 한분이 와서 그 아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니 그 아이가 한없이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어느 이태리계 여자고등학생의 경우, 자기 부모가 집안에서는 일절 영어를 못쓰게 하고, 반드시 이태리말로만 대화를 해야 하고, 심지어는 T.V.프로도 이태리 프로그램만 보게 하고, 캐나다 남학생과 교제도 못하게 했다. 간단히 말해 철저한 이태리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이 여학생은 마약을 먹기 시작했고, 집을 뛰쳐나가 창녀가 되든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에 걸린 여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후손에게 전달시켜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융통성없이 강요하여 자녀의 창의력을 잃게 한다든지, 인간마저 상실하게 된다면 모국어교육의 본래의 의미도 잃을 뿐더러 자녀마저 잃을 가능성도 있겠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 존칭어가 많이 있는 한국어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지나친 존경을 강요하면 그 자녀는 지극히 복종형이나 반박형의 인간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음을 연구해 보아야겠다.

두개의 언어를 하면 여러면으로 편리한 점이 있지만 그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이곳 한인가정에서 태어난 한국계 아이가 한국말을 못한다든지, 한국말 발음이 이상하다든지, 문법이나 어휘선택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아이를 조롱하는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끝〉

필자는 이 글에서 문화를 간단히 정의해 보고, 문화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혜택과 부정적인 요소를 간단히 논하면서 문화 속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요약해 보았다. 이어서 캐나다의 복합문화정책의 유래및 의미, 소수민족의 언어교육현황및 중요성, 이민생활의 적응실태와 모국어교육의 연관성과 모국어교육을 자녀들에게 융통성없이 강요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몇개 나열해 보았다.

끝으로, 소수민족들이 캐나다의 복합문화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문화보존과 모국어교육에만 몰두하면 소수민족 단위의 게토(Ghetto) 형성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고 본다. 우리는 한국적인 문화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선량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캐나다사회 건설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선량한 시민, 자신감있는 복합문화적 인격(Multicultural Personality)형성을 위해 모국어교육은 실천되어야 겠다고 믿는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의 사나이

殺意斷層 ⑥

<39>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객은 가정부를 밀어제치고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문자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을 보고는 기겁하고 뛰쳐 일어났다. 모세는 이를 드러내고 소리없이 웃었다. 가정부가 뒤따라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가정부가 보는 앞에서 이상한 눈치를 보일 수도 없어 문자는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들어오세요.」

「불시에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모세는 능글맞게 말하면서 집을 벗고 거실로 올라왔다. 문자는 가정부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놀란 모습으로 서있는 그녀에게

「넌 들어가서 네 할 일이나 해.」

하고 말했다.

「차 끓여올까요?」

사정을 알리 없는 가정부로서는 당연한 물음이었지만 그러한 가정부가 문자는 몹시 밉살스러웠다.

「차는 필요없어!」

그때 모세가 끼어들었다.

「아, 잠깐…손님한테 차 한잔대접 안 해서야 되나. 아가씨, 나 코피 한잔 줘요.」

가정부는 문자의 눈치를 보고나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눈을 떨지도 않은채 소퍼에 가서 털하니 앉았다. 아주 편한 자세로,

「이리 오지 그래.」

문자는 아뭇 소리 못하고 그의 맞은 편 자리에 다가가 앉았다.

「어디아픈가? 수척해지셨는데…」

「집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나를 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지? 나를피하려고 하지 마.」

가정부가 차를 끓여 올때까지 그들은 냉랭히 앉아있었다.

가정부는 낯선 사내가 무서운지 힐끗 거리면서 그 앞에 코피잔을 놓고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버렸다.

「음, 제법 코피를 끓이는군. 날씨가 추워졌어.」

그는 입맛을 다시며 [illegible] 코피를 마셨다.

「집이 아주 좋군. 난방도 잘돼 있고. 남편 벌이 좋겠다. 남편이 사랑해주겠다. 정말 행복한 주부시군.」

「얼른 가주세요.」

「좀 있다 가겠어.」

「남편이 온댔어요.」

「오라 그러지. 만나고 가면 뭔거 아니야?」

문자는 흑빛이 되어 바들 바들 떨었다.

「이번에는 또 뭐예요? 얼른 말씀하세요.」

「가만 있어. 목욕이나 좀 하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지.」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소리를 죽이며 말하자니 더욱 미칠 것 같았다.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 같은 기분이었다.

朴 男 그림

집에 찾아온 모세는 먼저 목욕탕에…

〈독자의 광장〉

언어와 국적

정 창 우 (토론토·돈밀거주)

"어딜 가시오?"

"I'm an American",

"저놈이 한국사람이 틀림없는데 미국인 행세를 한단 말이야"

하며 경비원이 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한대 올려 붙혔다. 미국인이라고 하던 사람이 "아이쿠"하고 당황하자, "미국사람이 아이쿠하는 소리 처음듣네"하며 쫓아보내면서 여러번 속은것을 분해했다.

요즈음 같으면 외국시민권을 가진 한국인도 꽤 많아 한국에 있지만, 사변직후 서울의 미국군인 전용호텔 앞에서 있었던 일이다. 아마 영어를 하고 다니면서 뭔가 한국인에게 없는 특권을 가져보려 했었는지 모른다.

또 그당시 반도호텔 근처에 가면 한국사람들끼리 서로 "지미 한"이니 "폴 킴"이니 영어이름을 부르며 영어단어를 섞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꼴들을 많이 보았다. 반도호텔에는 외국상사, 외국항공사등이 많아서 외국인과 접촉이 많은 탓인가 보다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겉멋만 부리는 속알머리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에 이민온 우리 교포들중에(아마 극소수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을 더러 보게 되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영어만 쓰게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 무슨 자랑인양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건 자유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 애는 한국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자랑이란 말인가? 창피스러운 일이다.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어린애를 데리고 도매상에 물건을 사려오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어린애가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이것 저것 만지면서 한국말로 "이건, 뭐야? 저건뭐야?"하니까 겁을질겁질 겁집고있던 아빠되는 어른이 "Don't touch, come here"하고 영어로만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 하는데, 과히 시원치도 않은 영어발음을 어린애가 배울까 염려스럽다. 혹시 주위의 캐네디안을 의식해서일까 하고 좋게도 생각을 해 본다.

애들이란 구태여 집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며,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라다보면 이곳 애들에 못지 않는 영어를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곳에서 애들을 키우며 15년을 살아온 나의 경험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4개국어, 5개국어를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린 애들과 집에서만이라도 한국말을 쓰면 애들이 힘안들이고 2개국어를 하게 되는 것을 왜 영어만을 고집하는지 모를일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는 것일까?

앞으로 3세, 4세가 태어나서 한국을 잘 모르더라도 피는 속일수 없는 한국인이며, 자기 조상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할아버지대에서부터 이곳에 살아온 한 동양인이 서양사람들 틈에 섞여 살다보니 자기도 서양사람인가 착각을 하다가 거울을 볼때면 나는 서양사람이 아니였구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곳 국적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갖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자녀들의 언어 교육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

지난5월31일자 본란에 "발음표기와 개명"이란 글을 내가 썼는데 혹시 개명을 하실분을 위해서 내가 법적수속을 밟은것을 토대로 그 절차를 간단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

우선 용지와 수속절차 설명서를 시내에 있는 Legal Service(44 St.George, Tel:978-6447)에서 얻을 수 있다.

공증인, Supreme Court of Ontario, Sheriffs Office, County Court clerk's Office등 네곳에 차례로 들려야 하며, 비용은 약 35불이 든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외국어대학 동문 야유회

82년 여름 야유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동문 여러분 가족동반 하시어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 8일(일) 상오11시
❖장 소: 시리나·군디 공원(Serena Gundy Park: 서니부룩공원안) (작년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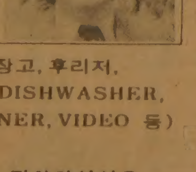
※점심은 동문회서 준비.
※각종의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과 상품이 있음.

한국외국어대학 동문회
회장 장 해 웅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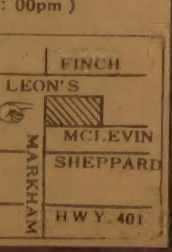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00am- -10: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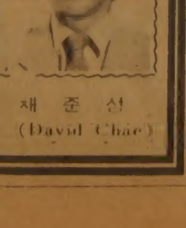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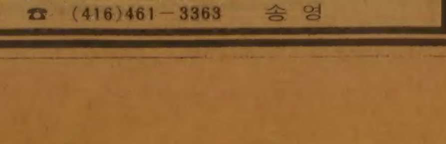
— 경 력 —
★ 마니노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B〉(416)497 8900 채 준 선
〈R〉(416)633 7892 (David Chae)

YOUR KEY TO THE FUTURE
† 당신을 위한 성공의 열쇠 †
ENCYCLOPAEDIA BRITANICA

NEW ENCYCLOPAEDIA BRITANICA



브리태니카 백과사전 전30권

▲세계최고의 권위있는 백과사전 (214년의 역사와 전통과 명성) ▲전세계 116개국에서 동시 판매중. ▲자녀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유치원서부터 대학교수까지 사용) ▲보다 나은 인격의 권위를 위해 「가정도서실」을 갖고자 원하시는 분.

2333 DUNDAS ST. W. SUITE 506
TORONTO, ONT. M6R 3A6
☎ (416)461-3363 송 영

日文部省 原本수정 主導

애국심 지나치게强調 檢定과정서 직접指示

駐日한국관계機關 경위調査서 판명

일본검정교과서의 왜곡표현은 일본문부성이 검정과정에서 애국심 고취를 내세워 해당출판사에 의도적으로 수정지시한것이 28일 밝혀졌다. 일본문부성은 고교역사교과서의 검정과정에서 한반도 및 중국대륙침략, 강제징용, 3·1운동의 양민학살, 중국의 南京학살사건등의 역사적 사실에대해 애국심 교육을 내세워 다른말로 바꿔 표현(왜곡)하도록 수정 지시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주일한국관계기관에서 왜곡된 부분의 내용수정경위를 조사, 본국에 보고해 옴으로써 밝혀졌다.

이 보고에의하면『日本史』에서 강제징용의경우 원본에는『조선인을 일본본토로 강제로 연행, 광산등에서 혹사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는것을 문부성이『당시 조선은 일본의 영토로 국민징용령을 적용했기 때문에「강제」라고는 말할수없다』는 의견을 내세워 수정할것을 지시했다.

또 3·1독립운동에 대해서 원본에는『일본군대와 경찰의 탄압으로 조선인 7천명 이상이 살해당했다』고 표현한것을 다만『군대 경찰에의해 폭동은 엄하게 탄압당했다』로『살해당했다』는표현을『탄압당했다』는표현으로 왜곡할것을 지시했다.

또 일본의 한반도, 중국대륙 침략과 中日전쟁에 대해 원본에는『국민정부와 공산당의 항일 통일전선이 성립돼 일본의〈침략〉에 대항해서…』라는 표현을 검정과정에서『다른곳에서는「진출」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부분만「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 자국의 교과서로서 침략이라는 말을 사용함은 좋지않다』는 이유를 붙여 수정지시했다.

이밖에도 中國의 南京대학살에 대해서도 원본은『南京을 점령한 일본군은 많은 비전투원을 학살하고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로 되어있는 것을 문부성은『南京사건의 진상은 불확실하고, 혼란한 이상사태라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씀것, 또 희생된 사람에 군인을 포함시킬것』등을 지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부성의 검정배경에는 2년전부터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에 대해 가져왔던 견해가 크게 작용했다고 일본의 학계에선 믿고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자민당의 교과서정책은 「나라를 지키는 기개」측 애국심 교육을 강조해왔는데 문부성에 대해 검정과정에서 明治헌법, 패전전의 군국주의 정책을 비판한 표현에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것을 지시했다는것.

검정교과서는 교과서회사가 제출한 원고본(대학교수등이집필)을 문부성의 교과서 조사관이 중심이돼 검정하고 「교과용도서검정 심의회」가 그시비를 가려 최후로 판정하게 된다. 심의회는 학자, 문화인등 전문가 들로 구성돼있으나 구성원의 임명은 문부대신이 하게되어있어 정부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된다.

政府、곧 후속對應策

日회답 오는대로 歪曲등 是正요구방침

日本의 역사교과서 歪曲과 일부閣僚의 妄言및 再燃된經協교섭에 관한 지극히 냉담한 回答代案제시등으로 긴장된 韓日관계는 日本측의새로운 對韓자세정립 노력이없는한 한동안 지속될것으로보인다.

역사歪曲·날조에 관해「사태를 銳意注視」키로한 정부는 조만간있을것으로 보이는 일본측의 경위설명내용의 성실여부에따라 歪曲부분에 대한 강력한 是正요구, 妄言에 대한해명등 일련의 後續對應策을 마련하게될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외무부는 28일상오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교과서파동에관해 日本외무성과 주한日本대사관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駐日대사관은 보고에서 지난26일 대사관관계자가 日本외무성을방문, 교과서歪曲기술문제의 진상을 밝혀줄것을 요구한데대해 外務省측은「한국내의 沸騰한 여론과 교과서의 표현상에 문젯점이없지 않다고 판단, 是正을 검토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文部省에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일본외무성은 또한 아직 日本정부의 통일된 見解는없지만 다만 이문제가 더이상 확대되는것이 좋지않다는데 文部省과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아울러 보고해왔다.

그런데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앞으로 사태발전에 맞추어 취하게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외교조치를 검토한것으로알려졌는데 한소식통은 정부는 앞으로 일본측의 교과서문제에 관한 공식해명이전달되는대로 우리의 駐日公館 또는 駐韓日本대사관등을 통해 엄중항의와 관련部處간의 교섭을 통한 歪曲부분의 是正을 요구하게될것으로 전망했다.

駐韓 네덜란드大使 호이팅크氏를 任命

네덜란드정부는 신임駐韓대사에 아리·베르나두스·호이팅크 외무성아시아·大洋洲국장을 임명했다. 호이팅크大使는 54년 외무성에들어간이래 벨기에·헝가리·태국·스페인·칠레·프랑스등 해외공관에서 근무했고 78년이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으로 일해왔었다.

天皇권능 擴大움직임

日自民黨、헌법改正案 마련 / 國政에도 참여 實質국가元首化

【東京28日=宋孝彬특파원】 교과서검정을비롯, 일본의保守右傾化가 문제가되고 있는 가운데 自民黨헌법조사회는 28일 天皇의 권능을 國事에서 國政에까지 확대시킬수있도록한 헌법개정안을마련, 각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自民黨의 헌법조사회 제1분과위원회는 이 개정안에서 천황의 권능을 현행대로「상징적인위치」에 둔다는 내용외에 국가의 원수로한다는내용을 併記키로했으며 현행헌법제4조「天皇은 國政에 관한 권능이없다」는 한목을삭제, 실질적으로 국가元首化를 꾀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결국天皇의 통치권부활을 기도하는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개정안이 확정될경우 일본은지난6일「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헌법제9조를 삭제함으로써 자위대의 존재를合憲化, 재무장의 길을 마련한데 이어 맥아더헌법인 현행헌법의 골자가 모두없어지게 된다.

韓英洙 의원 辭退書 제출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된 民韓黨의 韓英洙의원(47·瑞山·唐津출신)은 28일하오 「一身上의사정」을 이유로 의원직辭退書를 鄭來赫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韓의원의 사퇴서는「국회가 閉會중일때는 국회의장이 의원사직을 허가할수 있다」는 국회법 133조에 따라 금명간에 처리될것이라고 국회관계자는 밝혔다.

韓의원의 의원직사퇴에 따라 11대국회의원수는 모두 2백75명으로, 民韓黨의석수는 81석으로 줄게되었다.

한편 국회의원선거법 제140조는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하도록 돼있으나「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 정원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행하지 아니할수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韓의원 출신구인 瑞山·唐津에서의 補選은 실시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經協 總額합의 불가능

마에다 日大使 日예산제도론「한해分」뿐

【濟州】마에다·도시까즈(前田利一) 駐韓日本대사는 28일 현안중인 韓·日經濟協力문제에대해『日本의 예산제도는 單年度主義 이기때문에 5년간의 總限度額을 미리약정한다는것은 單年度主義 예산정신에 입각, 도저히 생각할수없는일』이라고말했다.

마에다대사는 한국능률협회가 濟州에서 주최한 최고경영자세미나에 특별강사로참석, 韓·日經協에 관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昨今에 60억달러 또는 40억달러라는 經協總額규모가 兩國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있으나 이는 앞으로 수년간의 對韓經協총액규모를「가늠」한다든지 또는「腹案」이란는 의미일뿐 실제로 양국이 합의할때 公表되는것은「한해分」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주기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經協에대해 日本이 제시한 이른바「최대限度」의 案과 한국이 기대하는 내용과는 아직 거리가있으나 상호이해를 통해 가을까지 좋은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에다대사는『日本의對外經協원칙은 상대국의 경제·사회개발을 지원하고 민생안정·복지향상을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日本정부는 그밖의 다른취지의經協은 행하지않고있다』고 말해 한국측이 명분으로 내세운「安保經協」에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日本의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질문을받고『한국측이 韓日의원연맹을 통해 이문제를 제기한것은 커다란성과를 얻을수있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본인은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總額베이스는 이미合意" 外務部、眞相조사

외무부는 28일『韓日經協에있어 總額限度額합의는 있을수없으며 어디까지나 매년합의하는 單年度방식이될것』이라고 말한 마에다日本대사의 濟州연설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위해 駐韓日本대사관에 演說全文을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외무부 한간부는『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무어라고 말할수는 없으나 마에다日本대사의 濟州發言은 日本측이 종래부터 주장해온 經協의 일반원칙을 얘기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

그는『總額베이스의 교섭은 이미 韓·日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文公委소집 5~10일께

日本의 역사교과서 歪曲과 이와관련한 일부각료의 妄言을 다루기위한 국회文公委가 내달 5일부터 10일사이에 소집될것으로 보인다.

民正黨의 한관계자는 28일 상오『日本역사교과서의 한국관계 史實왜곡을 다루기위해 文公委를 소집키로 黨內의견이 집약되어있다』고 밝히고『소집시기는 李鍾贊총무가 귀국하면 民韓黨이 주장하고있는 8월5일~10일 사이에 결정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文公委를통해 명백한 史實에대한 왜곡사태에 갖는 국민의분노를 수렴하고 日本지도층의 반성과 시정을 촉구하는 이론정연한 논리를 펴게될것』이라고 전했다.

李哲熙·張玲子 懲役15년 求刑

"李張사건 檢察추궁 미흡"

民韓 조사特委

民韓黨의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 조사特委는 28일상오 3차회의를 열고 지난7일의 1회공판에서 24일의 6회공판까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사항을 검토하는한편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논의했다.

許京萬위원장은『이사건에 관한기록열람이 거부되고있어 검찰에 기록열람협조를강력히 요구키로하고 李·張부부등 주요인물을 만나볼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또『재판과정에서 전배후, 자금흐름등 납득할만한 추궁이 미흡하다』면서『特調委는 정부와 검찰에 대해 특조위활동에 협조해 줄것을 촉구하겠다』고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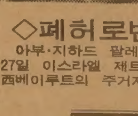
◇폐허로변한 西베이루트市街 아부·지하드 팔레스타인解放기구 (PLO)방위사령관이 27일 이스라엘 제트폭격기들로부터 수차례 폭격을 받은 西베이루트의 주거지구를 시찰하고 있다. 【베이루트(레바논)27日 AP=東亞聯合】

社會漫評

銳意 注視키로…

地平線

「…외무지개로 하강하시고/…쌍무지개로 내린말이…」무당들은 "나비님이 하늘에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셨다고 된다。무지개 발로 강남하시고/서릿발로 강남하시고/구름발로 강남하시기도한다。치원대와 양산복부는「…쌍무지개저서 물이 하늘루 승천」했다。인간에게 생명을 점지해주는 삼신할머니인 당금아기의 어머니도『하늘로 무지개다리 놓고 올라갔다』한다。▼무지개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목이었다。서릿발이나 구름발처럼 인간이 헤아릴 없는 경이로운 자연의 기적이었다。『무지개를 보라。그리고 그것을 만든 이를 찬양하라』고 외친 구약성서의 귀절도 같은 맥이다。「한번은 하늘에 장엄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고 영국의 시인 키츠는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를 찬미하고 있다。▼아득한 그 옛날부터 사람의 가슴을 뛰게한 무지개의 정체를 이제는 학교교과서에서 배워 누구나 손쉽게 알고있다。소위 프리즘현상이요, 분광현상의 원리다。보통 맨 바깥쪽에 빨간빛, 안쪽에 보라빛이 된다。이것은 햇빛이 물방울에 한번 반사돼 나온 1차무지개다。두번째 반사돼 나온 2차무지개는 빛깔이 약하고 빛깔의 순서도 거꾸로 돼있다。▼1차무지개와 2차무지개가 서있는 것을 우리는「쌍무지개」라고 부른다。쌍무지개의 사이는 약간 어둡게 보인다。또한 태양이 뉘엿뉘엿 지평선에 져가는 때라면 무지개의 頂点이 지평선 밑에 있게돼서 눈에 보이는 무지개는 半圓보다 약간 작다。27일 하오 7시20분께 서울의 하늘위에 떠오른 쌍무지개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마침 퇴근길의 러시아워에 떠오른 쌍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않은 서울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잊어버렸던 자연의 신비를 되찾았기 때문이다。대도시와 공단지역의 하늘에서는 이 하늘나라에의 구름다리를 이제는보기 어렵게 돼가고있는 것이다。중앙기상대에 의하면 공해가 심한 울산에서는 70년대이후 6년만에 한번꼴로 무지개가 나타났을 뿐이다。대도시 서울도 엇비슷했다。70년부터 81년까지 12년동안 울산에서는 단 3번, 서울에서는 8번 무지개가 나타났다。이에 비해 비교적 공해가 적은 전주에서는 12번 무지개가 관측됐다。공업단지나 대도시에서 무지개가 줄어든 것은 대기오염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공해에 찌든 우리의 생활환경을 또한번 생각케하는 일이다。하늘로 가는 구름다리를 되찾는 것도 역시 환경행정의 책임인것같다。



533-2361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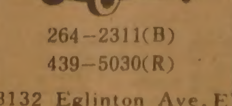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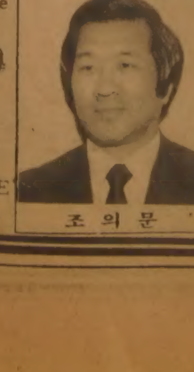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 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MLS 주식회사 환윤현부동산 HWANG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 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즐거운 서울방문은!

도와드리겠읍니다.

서울행 매주 출발
이민, 방문 초청안내
국내, 국제항공표

535-6004 535-8801

신속, 정확한 컴퓨터 써비스

서울여행사

IATA 631 A BLOOR ST. W. TORONTO. 최 동 주 Ⓡ293-9970

되살아난「大日本帝國의 꿈」

—平和헌법 改正案마련 속셈은

戰爭포기조항·天皇의 상징적 地位 삭제

再武裝으로 軍事大國 발돋움 戰前의 大東亞공영 再版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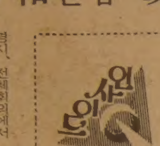
【東京28日=宋孝彬특파원】 일본은 어디로 가려는가. 일본은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軍國主義를 美化하고 제국주의 침략행위를 합리화하려 했는가하면 군비증강 5개년계획을 수립,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있다.

보수右傾化의 일본사회에 발맞추어 집권 自民黨은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전쟁포기조항을 삭제하고 敗戰前의 천황제를 부활시키는 듯한 헌법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집권 自民黨이 천황으로 하여금 政府참여의 길을트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것은 크게 주목되고있다.

自民黨의 헌법조사회 제4분과 위원회는 지난7월 6일 자위대의 존립근거를 명시하고 총리대신이 자위대의 출동명령을 내릴수있도록 함으로써 일본이재무장할 수있는 근거를 명시한다는 헌법 제9조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自民黨 헌법조사제1분과위원회는 현행 규정된 천황의 권능에 대해 상징적인 지위로만 머물게한현행헌법 제4조를 삭제, 천황이 사실상 국가원수로서의 권능을 가질수있도록하는 길을 열었다.

제1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평화헌법개정안의 내용은 천황과 내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천황을 상징적인 지위에머물게 하자는 의견과 천황을 원수로서 못박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결론을 내리지않고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명시, 전체회의에서 可否를 채택토록했다.



그러나 헌법 제4조에규정된 『천황은 國政에 관한 기능을 갖지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천황이 사실상 國政참여를 확대할수있도록 길을 터놓았다.

일본헌법 제4조는 패전前의 헌법에서 규정한 천황통치를 부정한 것으로서 침략전쟁을 영원히 포기한 일본헌법 9조와 더불어 현행의 평화헌법의 양대지주이다.

집권 自民黨의 헌법조사회는 이평화헌법의 근간인 ①전쟁포기조항과 ②천황의 상징적 지위규정을 삭제하고 재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패전前의 大日本제국에로의 망상을 재현하려하고있다.

自民黨 헌법조사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헌법 제4조 「천황의 권능」조항이었는데 결국 「천황은 헌법에 정한 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한다」는 전반부분은 그대로 존속시키고『國政에관한 기능은 갖지 않는다』는 부분은 삭제, 천황의 권능에 한계를 암시하지 않았다.

헌법 제4조는 明治헌법에서 남용됐던 천황의 神格化와 무한대의 권한을부정하기위해 명문화한 것이었으나 自民黨 헌법조사소위원회가 國政참여권을 인정하지않는 후반부를 삭제함으로써 거꾸로 천황의 國政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社民黨을 비롯한 일본의 야당은 헌법개정안이 군국주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 강력히 저지할것을 밝히고있어 앞으로 정치문제화가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사태후 일본사회가 급격히 右傾化함에 따라 自民黨은 검정교과서의 강화로 인한 애국심교육의 주입과 함께 대륙침략및 식민지통치를 합리화, 천황제를 옹호하는 작업을 꾸준히 펴왔다.

일본 文部省은 明治헌법에 대한 지나친 비판에 대해서도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완화할 것을 종용해 왔으며 천황의 사망에 대해서는 「逝」이라고 존칭을 쓰도록 요청했다.

검정교과서가 패전前의 군국주의를 美化하고 대륙에의 침략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일본이 재무장으로 과거 외쳤던 大東亞共榮圈의 재판을 꿈꾸고 있기때문이다.

7월23일 스즈끼 수상은 국방회의를 열어 방위력증강 5개년 계획안을 승인, 83년부터 연간 3조엔 (약1백20억달러) 이상을 군사비로 투입할 것을 결정했는데 방위력증강 5개년계획이 완수되는 87년까지 약 6백50억달러의 군사비를 투입, 방위력을 증강시킬 계획이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戰車는 1천3백14대, 장갑차 7백96대, 호위함이 1백78척으로 해군력은 세계제 5위에 이르게 된다.

또 공군력은 신예전투기인 F15機 1백38대 P3C對潛초계기 72대 요격전투기 2백41대 조기경보기 9대등 장비면에서 미국 다음가는 강대한 현대장비로 무장하게된다.

일본은 복고풍의 재무장바람과 함께 패전후 자취를 감췄던 2월11일의 紀元節을 건국기념일로 부활하고 군국주의의 상징처럼 돼있던 야스쿠니(靖國)神社의 각료참배를 반공식화했다.

경제대국인 일본은 재무장과 실질적인 천황제의 부활을 위한 평화헌법 개정작업에 시동을 걸고있는 것이다.

社說

現代人의 정신적 環境

—세계文化政策회의와 우리立場

산업화와 기술공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적 환경을 다루는 유엔총회가 26일 막을 올렸다. 멕시코시티에서 12일동안 열리는 유네스코주최의 「세계문화정책회의」가 그것이다.

1백10개 유네스코회원국을 비롯해서 국제기구대표등 2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70년 베니스회의에 이은 두번째 모임이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도 李振羲문공부장관을 단장으로 한는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공산권을 포함한 회의의 규모로 보더라도 정치를 다루는 유엔총회와 다른 뜻에서 이번 문화총회의 비중을 짐작할수있다.

한국의 李振羲장관은 28일 기조연설을통해 경제적 남북문제와 비슷한 『문화의 남북화현상』에 언급하고, 전통문화와 현대서구문화의갈등을 경험하고있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강조했다.

보도된것처럼 (한국일보 23일자 7면) 이번 회의는 12년전 베니스회의이후의 상황을 검토하고, 결의안과 권고안을 채택하게된다.

베니스회의에서는 산업화시대에 있어서의 문화적가치를 강조하고, 개발과 문화유산의 대립관계 그리고 문화의 민주화와 민족문화의 보호같은 문제들이 논의됐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활동이 산업활동의 영역이 돼가는 상황에서 문화적가치가 어떻게 존재할것인가하는 문제의 제기였다고할수있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그뒤 연이은 유럽·아시아·중동등 각지역 회의에서 다양하게 발전됐었다.

예를들어 유럽지역의 헬싱키회의에서는 문화활동의 대중화가, 아시아의 족자카르타회의에서는 전통문화보존과 문화활동에서의 관료지배, 또는 평생교육등이 논의됐다.

이번 제2차 세계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표면화될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세계의 문화활동을 리드하고있는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제3세계와 공산권이 제각끔 다른 문제와 해결방식을 주장할것 같다.

개인의 창작활동을 허용하지않는 소련등의 공산권대표들은 군축이나 소위 「신식민주의」 또는 인종문제같은 엉뚱한 정치문제를 들고나올것으로 보인다.

제3세계의 대표들도 최근몇년동안 유네스코의 주도아래 논의돼온 소위 「매스컴의 선진국독점」같은문제를 들고나올것이란 전망이다.

정보유통에 정치권력의 통제나 영향행사를 반대하는 서방측 선진국들이 이문제에서 제3세계대표들의주장과 다른 입장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또한 소위 「새로운 세계 정보유통질서」가 자칫 공산권의 反서방 선전술책에 휘말리기 쉬운 것으로 상당히 미묘한 정치적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생존환경과 문화적 생활양식을 뒤바꿔 놓는 이 거대한 기술공학과 산업화의 물결에 맞서 있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의 기반이 발견될것이 틀림없다.

대중매체의 홍수속에서 인간의 창조적인 개성을 보존·개발하고,이론적으로는 같은 뜻을 지닌 전통문화재와 민속의 보존같은 문제가 그것이다.

고급문화의 대중화와,국제적인 문화교류의 확대도 정치적인 빛깔이 적은 분야가 될것이다.

공산주의와 맞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조활동에 바탕을 둔 사회발전을 목표로 하고있는 우리는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있다. 내일의 세계문화를 위해 새로운 개성있는 창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발전도 자유로운 개인의 이니셔티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번 회의의 출발점이자 결론이 될것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돼가는 각종 미디어의 문제도, 그리고 국가권력이 모든것을 통제하는 공산권의 문화활동의 개념도 이런 뜻에서 이번 회의의 최대의 이슈가 될것이다.

여름食品에 異狀없나

—大腸菌이 든「냉면」, 놀라운 실태다

한데 시민들이 더위를 잊기위해 즐겨찾는 시내 큰음식점의 냉면육수에서 대장균이 많이발견됐다는 놀라운 조사결과를 YWCA사회문제부가 밝혔다. 50여개중 80%나 되는 음식점 냉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니 여름철 식품 위생에 얼마나 소홀한가를 알수있다. 이렇지 않아도 식후가 좋지않은 것은 당연하다.

하루의 日較差가 매일같이 10도를 넘고있는 이때 冷症, 배앓이, 세균성 설사에 겹쳐 변비, 過敏性大腸症候群 症狀도 나타나기 쉽다. 보태서 스트레스, 과로, 倦怠感, 不眠症까지 따르기일쑤며 모두 早期에 치료해야 안전하다.

그밖에 음식은 부패되기 쉽고 날채소, 날과일을 많이 먹는 계절이므로 水因性 전염병에도 조심해야될 것은 물론이다. 냉장고가 대량 보급되기는 했으나 腐蝕指數가 가장 높은때이므로 식품보관에 신경을 더욱 써야할 것이다. 腐蝕指數는 기온과 습도의 도수를 말하는데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60%의 습도속에서도 곰팡이가 피고 음식물이 상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부식지수는 25%이나 요즘은 열대지방에 가까운 75%나 된다. 청결에 유의하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되도록 먹어야 한다. 옛날엔 더위가 한창인 복중엔 계삼탕과 보신탕을 많이 먹었다. 또 팥죽을 먹으면서 악귀를 쫓고 무병을기원하는 풍습도있었다.

비록 냉장고는 없었지만 옛 조상들은 식품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한것 같다. 장을 담글때 으레 참숯을 빨갛게 달구어 넣고 다홍고추를 꼭지가 붙은채 볶에우워 그위에 띄운것은 除厄과 함께 殺菌, 脫臭를 하고 繁榮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었다. 독뚜껑을 열고 맑은공기를 쐬어 햇볕이 들게 하는것도 장을 익힐뿐 아니라 그 위생 관리를 하기위해서다. 비타민B2나 대장균, 비브리오균은 잘 몰랐더라도 오랜 식생활을 통해 스태미너식품과 식품위생을 선조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름이면 위장이 약해지게 마련이다. 자극성있는 음식을 피하고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음식을 고루먹고 날음식은 되도록 피하되 먹을땐 몇번이고 깨끗이 씻어야한다.

요즘 나도는 腸티푸스,이질,콜레라 防疫에는 빈틈없는 방법이 달리 없다. 식품위생에 주의하고 우물 물이나 음료수를 끓여먹는 습관부터 철저히 지키면 그리 무서워할 병은 아니다. 또 냉장고를 너무 믿지말고 얼음에도 세균이 많다는점을 깊이 새겨야한다.

이땅에서 식품에 얼음을 쓴 기록은 三國시대부터 있었다. 또 臘雪水(눈 녹은물)에 과일을 담가두면 싱싱함을 보존할뿐 아니라 新羅때부터 三國史記 新羅條에 나와있다. 地下水보다 雪水가 더 위생적이란 것도 이미 알고있었다. 靑銅가루를 물에 섞어 葉綠素를 보존하려고 노력한 역사적 사실도 현대인도 놀랄만하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전에는없던 冷房病까지 생긴 현대사회에서 냉면하나 제대로 위생관리를 못한대서야 말이 안된다.

한여름의 건강관리, 식품관리가 곧 보건이며 장수의 길임을 잊지말고 누구나 눈을 크게떠야 하겠다. 그런뜻에서 한여름은 위대하면서도 가장 무섭고 주의하며 살아가야할 계절이라 하겠다.

이機, 6일째 猛爆

西베이루트 死傷者 2백50여명

【베이루트27日SPA=聯】 이스라엘전폭기들은 27일 연 6일째 西베이루트에대한 폭격을 단행, 막대한 인명및재산피해를 발생케했으며 이와함께 이스라엘함정들도 인구조밀지역에 무차별 포격을가했다.

이날 이스라엘 전폭기들은 레바논침공이후 처음으로 西베이루트중심가 인근의 상가지역을 폭격, 많은수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으며 해안지역의 인구조밀지역에도 포탄이 투하됐다.

팔레스타인—레바논합동군의 한대변인은 이스라엘전폭기들의 이날폭격으로 2백50여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고말했다. 그는현재까지밝혀진사망자는 1백여명이나 구조대원들이 파괴된 건물더미속에서 구조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스라엘군은 西베이루트에대한 단전및 단수조치를 단행했다.

PLO, 수단提議 拒否할듯

【베이루트27日AP=聯】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는 西베이루트에 포위돼있는 팔레스타인게릴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는 가파르·누메이리 수단 대통령의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것같다고 팔레스타인소식통들이 27일 말했다.

한 PLO소식통은 『누메이리는 단지 팔레스타인人들을 말살하려는 미국인상전을 위한 심부름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누메이리의제안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팔게릴라 뤼受容의 요르단, 2천명규모

【암만(요르단)27日로이터=聯】 서부베이루트에 포위돼있는 팔레스타인게릴라들중 요르단여권소지자로서 보안기록부에 기재돼있지않은 게릴라들을 요르단에 받아들일 용의를 갖고있다고 요르단의 권위한 소식통들이 27일 밝혔다.

비공식집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게릴라들중 요르단여권을 소지한 자는 약2천명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신분증과 시리아및 기타여권을 갖고있다.

蘇, 쿠바에 新銳機공급

미그23機 40臺 搬入추정… 美 크게우려

【워싱턴27日AP=聯】 소련은 금년초부터 쿠바에반입된 미그23機는 모두 약40대에 이를것으로 추정된다고 美국방성관리들이 27일 밝혔다.

헨리·캐토국방성대변인은 지금까지 쿠바에공급된 미그23B전투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국방성관리들은 쿠바가 12또는 15대의 미그23B전투기를 도입했을것으로 추정하면서 이들 신형전투기는 소련이 역시 쿠바에 공급해온 아톨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긴 아펙스미사일로 무장해있을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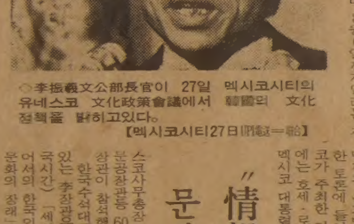
캐토대변인은 일부 구식미그23機를 보유하고있는 쿠바공군이 기본적으로 방위용 무기로 간주되는 미그23B전투기를 도입함에따라 전력이 크게 향상됐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약 10년전에 개발된 미그23B機가 소련의 최신형 전투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그23B機는 미그15및 미그17機에 대체될 것이라고 캐토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쿠바공군은 현재 약2백대의 각종 미그機를 보유, 여타 카리브海국가들의 공군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우수한 戰力을 갖추고있다고 말했다.

쿠바는 지난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이래 1년단위로는 최대규모인 총6만6천톤의 군사장비를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美관리들은 말했다.

李文公 멕시코 世界文化회의 연설



◇李振羲文公部長官이 27일 멕시코시티의 유네스코 文化政策會議에서 韓國의 文化정책을 밝히고있다. 【멕시코시티27日UPI=聯】

"情報독점·부당통제등 탈피 문화적先·後進性 해소해야"

【멕시코시티=裵大衛특파원】 세계1백10개국 2천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6일부터 8월6일까지열리는 제2차世界文化政策회의는 개막직후 분과별로 의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다.

유네스코가 주최한 이회의 개막식에는 호세·로페즈·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과 음보 유네스코사무총장 한국의 李振羲 문공장관등 60여개국의 문화장관이 참석했다.

한국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李장관은 28일상오 (한국시간) 「세계문화정책에있어서의 한국의 입장과 세계문화의 장래」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문화의 본질, 민족문화로서의 성격과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문화적 선·후진성을 해소하기위한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李장관은 『3세기에 이미 統一·獨立國家를 형성한 한국은 19세기에들어 문호개방과 동시에 現代西歐文明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民族文化와 傳統保存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면서 『日帝에의한 주권상실과 南北분단이 민족문화에대한 욕구를 더욱 크게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한국인의 문화적활동을 南北분단의 비극으로 여기고 전제하고 『文化的인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기위해서는 정보에대한 선진국의 독과점상태를 하루빨리 없애고 정보나 지식의 전파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따라 부당하게 조정통제하는 태도를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장관은 『文化도 경제와 마찬가지로 선·후진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있으며 이에대한 국제적인 시정노력이 미흡한상태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한국정부는 지난해 북한을향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분야의 상호교류를 제안했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경제적후진국가 반드시 문화적후진국가일 수는없으며 설령 후진문화라하더라도 그자체안에 독자적인 문화체계·창조적文化가치를 내포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제적·군사적·기술적우위가 문화적선진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선진국이 문화속에 도사린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요소들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왕성한생명력과 건강한 가치관을 품고있는 후진국의 문화적잠재력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밝힌 李장관은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후진국에대한 겸손한 문화투자, 이질문화간의 互惠的 문화주주, 그리고 인류공동의 문화유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와 실천작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日教科書왜곡」修正요구

中共수뇌 姬鵬飛

【東京27日=聯】 중공의 국무위원 姬鵬飛는 27일 하오 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일본언론인대표단과 회견하는 가운데 현안의 日本교과서 검정문제에 언급, 『역사를 왜곡하거나 나쁘게 고친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정부는 잘못된 교과서를 올바르게 수정할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日·中共국교정상화 당시 외상이었던 姬鵬飛는 특히 『교과서 검정이 內政문제라는 일본文部省의 견해가 잘못된것』이라고 공격했다.

「7·3조치」公聽會

民正, 公述人등선정

民正黨은 28일 오는8월10일 개최할 「7·3」조치에 대한 公聽會에 참석할 公述人과 질의자를 다음과같이 선정했다.

◇公述人▲종합부문=金基桓(KDI원장) 金鍾炫(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高永復(서울大교수)▲금융부문=朴昌圭(중소기업 대표·三愛기업사장)▲稅制부문=卞蘋(한국투자금융사장) 申耕(서울大교수) 金經九(변호사)

◇질의자=李宅珪(변호사) 魚俊善(安國약품대표) 朴容相(大韓商議이사) 徐敬寬(商銀이사) 姜聲振(三寶증권사장) 李末生(主婦) 徐相穆(KDI연구위원) 申泰煥(全經聯전무) 朴炳潤(한국일보경제부장대우) 權榮子(YWCA위원) 郭正出(民正黨의원) 崔明憲(〃) 李慈憲(〃)

한국은 太平洋요충

美선 脫日정책펴야

李鍾贊 운영委長

李鍾贊 국회운영위원장은 28일 『東北亞는 太平洋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要衝地이며 한국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의 東北亞정책은 아시아·太平洋이라는 지역개념이 아니라 日本을 軸으로 하는 據點概念은 인상이짙다』고 지적했다.

內外動靜

▲全斗煥 대통령은 28일 페루 共和國의 제161회독립 기념일을 맞아 벨라운데 대통령에게 축전을보냈다.

人事異動

財務部 ▲(과장급) 法務官 鄭濬洙 ▲국세심판소조사관 金鍾聲 ▲국회파견 林香淳 ▲한은파견 金鍾旭 ▲재무부본부(28日字) 延之休

本社來訪

▲吳景義씨 (전국戰時택시연합회회장) 人事次

政局往來

◆野球場서 유리병던지는일 삼가야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28일 상오 중앙청에서 서울시장의 보고를받은후 金聖培서울시장의 안내로 蠶室 서울종합운동장과 村洞 국립경기장부지일대를 시찰했다.

金총리서리는 서울종합운동장의 室內체육관과 최근준공된 야구장에 들러 『이만하면 잘됐다』고 관계자를 격려하고 『야구장 펜스가 서울운동장의 그것보다 10m정도 멀게 만들었다』는 브리핑에 『그럼 홈런치기가 더 어렵겠다』고 웃으며 대답.

金총리는 또 관람석의자가 廣告主들의 부담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듣고 『의자가 튼튼하게 만들어졌겠지요』라고 묻고 『운동경기때 관람객들이 제일 삼가야 할일은 유리병을 던지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金총리서리는 이어 蠶室경기장시설에서 4㎞가량 떨어진 국립경기장부지를 승용차편으로 돌러본후 金시장, 李相淵부시장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서울市政에 대해 환담했다.

◆아직 국민속에 뿌리 못내려

한국능률협회가 주최하는 최고경영인세미나에 참석하기위해 濟州에 내려온 李載灐民正黨대표위원은 28일낮 濟州道지부당직자들과 오찬을 나누며 격려했다.

李대표는 『濟州는 지난總選에서 패배한 지역으로서 將帥의 책임을 물어 위원장을 교체했다』며 『따라서 모든 당원들이 倍前의 노력으로 黨勢확장을 도모해달라』고 당부.

그는 또 『民正黨은 李·張사건에서 우리를 편들어준 국민이 없었다는 사실로 아직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것을 인식하고있다』며 『앞으로는 당원 모두가 행동에 모범을 보여 국민스스로 감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따라올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濟州】

◆辭退…黨次元서 논의될성질아니다

간통혐의로 구속중인 韓英洙의원의 결심공판및 의원직辭退를 보고받은 28일상오의 民韓黨회의에선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변호인단·黨律士에다 劉沃祐, 李泰九부총재와 黨3役, 총무단, 부대변인등이 참석한 이날 확대회의가 끝난뒤 林鍾基총무는 『시종 우울한 분위기속에 문제를 숙의했다』며 『8월7일의 선고공판전에라도 피해자측이 고소를 취하해주었으면하는 희망을 걸고싶다』고 막연한 기대를피력.

그는또 『회의에선 가족들의 손에의해 韓의원의 의원직사퇴절차가 이루어진것이 바람직하다는 衆論이었다』며 『더이상 黨차원에서 논의될 성질이 아닌것으로생각한다』고 말하기도.

이날 회의방침에따라 韓의원의사퇴서는 그의 비서관이자 實弟인 韓昌洙씨가 이날하오2시30분 국회사무처에 직접 제출했다.

韓의원 辭退…"시종 우울한 분위기속 문제숙의했다"

◆他黨앞질러 7·3 公聽會 개최

議政同友會는 28일 느닷없이 의원총회를 열고는 公述人 명단까지 결정하여 大政黨보다 앞질러 7·3조치에대한 공청회개최를 전격 발표하여 注目.

同友會의 공청회개최는 이미 공청회개최를발표한 民正(8월10일) 民韓黨 (8월6일)의 스케줄을 훨씬앞질러버린것으로, 黃明秀회장은 『며칠전부터 스케줄을 짰다』고 밝혔는데 이같은 電擊결정은 그동안 총무회담에참여하지못한 「疎外感」에서 연유했다는 소식.

한편 黃회장은 『일본교과서歪曲문제에 항의하기위해 29일 스즈끼 日本수상앞으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히고는 『스즈끼수상에게 직접 보내든지 마에다駐韓일본대사를 통해 보내겠다』고.

◆李民正총무一行 美上·下院방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회 東北아시아 安保심포지엄에 참석하기위해 訪美중인 李鍾贊民正黨총무는 27일하오 美上·下院을 방문, 하워드·베이커 共和黨상원원내총무와 짐·라이트 民主黨하원원내총무를 각각 만나 東北아시아 安保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환담.

이날 李총무는 캘리포니아출신 共和黨하야카와상원의원의 안내로 上院본회의장에 들어섰는데 마침 法案표결직전의 위원들에게 하야카와의원은 『李총무가 여러의미에서 韓美관계가 중요할때에 訪美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의 韓美관계는 발전적협조와 상호이해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이날 李총무는 의원들 소개가 끝나자 의원들은 각기 李총무일행의 자리로 찾아와 악수를 나누었으며 이어 李총무는 30여분 동안 베이커총무와 迎接室로 안내되어 의견을 교환. 이자리에서 李총무는 두총무에게 모두 한국방문을 초청했는데 이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후 기회있는대로 訪韓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회방문에는 奉斗玩 朴定洙 任哲淳 趙重衍의원등이 同行했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한국일보 특집판

지구村의 「제7大陸」에 꿈을건다

바다속을 헤쳐 본다

調査船「半月號」를 타고

【半月號에서=文昌宰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해양연구소소속 해양조사선 「半月號」. 우리나라에서 단 1척뿐인 다목적 종합조사선인 이배는 지난 9일부터 2주일간 南海일원에서 조사활동을 마치고 지금 仁川으로 귀항중이다.

큰 썰매모양으로생긴 해저층탐사기(Uniboom)를 바다위에 던지고 선미(船尾)로 끌고다니며 드넓은 바다밑의 지층 퇴적물(堆積物)을 조사하는 것이 이번 출항의 목적이었다.

바다위에 떠있는 탐사기는 갑판에 설치된 전원(電源)으로부터 공급되는 사운드(音波)를 해저로 발사한다. 사운드는 바닥을 때리고 해저지층에 닿아 반사되어 연구실안에 설치된 음파수신장치 하이드로·폰(기록계)에 의해 점과 시그널로 표시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기록도를 보고 연구원들은 해저지층의 퇴적물종류와 견고도를 판독하게 된다. 마치 X레이 사진을 판독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바닷물과 해저지층의 지질은 음파를 전달하는속도와 비중이 서로 달라 하이드로·폰에 표시되는 기록도의 농도가달라집니다. 이 마그네틱 시그널을 컴퓨터로 처리하면 여러가지 해저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읍니다. 가령 해저지층의 퇴적상과 퇴적과정 및 퇴적물과 기원을 파악할수 있으며 부유물질의 분포와 이동, 水理學的특성을 밝힐수 있어요』

연구팀장 宋雨永씨(33, 해양지질연구실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러한 조사는 해저케이블및 송유관부설, 발전소·항만등 산업기지건설, 항만의 매몰방지, 수로유지등 갖가지 용도에 이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海波예보, 大氣와 海水의 상관관계 규명, 해양환경의 화학적 구성및 역학관계 규명, 해양생물자원의 이용개발과 환경보전등 해양물리학·화학·생물학·공학분야에 골고루 동원되고 있다.

지난 80년 해양연구소가 2억원을 들여 仁川조선에서 건조한 이 배는 연안조사전용이므로 배의 규모는 보잘것 없다. 총톤수82톤, 길이21m, 폭5·8m, 최대속력 15노트, 항해속력10노트, 승선인원 15명(승무원7명·연구원8명).

연구설비로는 연구실 1실과 윈치 4대, 관측작업용 보트(7인승)1척이 있으며 주요기기로는 淺海用음향측탐기, 심해용 음향측탐기, 측면수심탐사기, 자력계, 자동염분 수온측정기, 潮汐計, 유속계, 채수기, 採泥器, 플랑크톤채집기, 수중TV촬영장치, 팩시밀리, 위성航法수신장치등이 있다.

『취항한지 만2년이 채 못되었지만 그동안 우리배가 쌓은 업적은 크다고 자부합니다. 加路 林灣 潮力발전소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는 모두 우리배가 해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착수된 한국해역 종합해양환경도 작성임무도 우리배가 맡고있읍니다』

半月號선장 崔俊和씨(40)는 조사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강행군을 하는 일이 많지만 「과학해양」의 첨병이라는 자부심 한가지로 일하고 있다고 자랑한다.

이번 조사활동 기간에도 하루작업이 너무 늦게끝나 모항(母港)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작업해역에 닻을내린채 전승무원과 연구원이 배에서 기거한날이 많았다고했다. 다른 연구팀의 조사작업스케줄이 꽉 짜여있어 가능한한 단시일내에 더많은 조사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했다.

◇해양연구소 해양지질연구실팀이 半月號에서 조사활동을 하고있다. 썰매모양의 해저지층탐사기(Uniboom)가 바다밑으로 사운드(音波)를 발사하면 해저지층에 닿아 반사되며 모양과 색깔이 각각 다른 시그널이 형성돼 지하 퇴적물의 성질을 알수있다. 【半月號에서 鄭在斗기자찍음】

堆積物조사에서 海波豫報까지 동원
뒤늦은「關心」… 投資안따르면「헛일」

사실 半月號 한척으로는 이제 태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해양과학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이 무리이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항스케줄을 짠다해도 해양연구소 5개연구실의 연구프로젝트를 모두 이 배로 수행하기란 불가능 한데, 각 대학연구소등 관련단체에 대선(貸船)을 해주어야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작 연구소의 어떤팀은 관광선 등 일반선박을 빌어서 조사활동을 벌이는일도 많다.

또 배가 너무 작은 것도 문제이다. 파도가 잔잔한 서해와 남해의 연안에서는 적합하지만 물결이 사나운 동해에서는 조사활동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도 조사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조사용도에 골고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5백톤급 조사선 1척과 30톤급 소형조사선 몇척은 있어야 자체수요를메울수 있읍니다. 半月號 한척으로는 미흡하기 짝이없어요』

해양연구소 연구부장 宋源吾씨(40·해양공학박사)는 한해에 한척씩이라도 기본장비를 늘려가지 않는한 해양연구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육지의 지하자원 임산자원 농업생산이 날로 줄어들어, 바다를 새로운 자원의 場으로 개발해야할 형편인데 투자가 따르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와하는 것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이면서도 우리나라는 해양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너무 늦게 눈을 떴다. 지난 70년 UN이 70년대를「국제해양의 해」로 선포하고 유네스코로부터 해양연구사업권유를 받고 난뒤 비로소 정부는「해양조사연구장기종합계획」이란것을 수립, 73년에야 과기처산하에 해양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순수한 종합연구기관으로서는 이땅에 처음 탄생한 연구소였다. 그러나 정책적뒷받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탓으로 지난 10년간 연구소의 활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정책당국의 인식부족으로 76년에는 선박연구소와 통합돼 고유임무가 약화되기도 했으며, 연구소건물은 물론 조사선 한척갖지못한 셋방살이로 전전해왔다. 78년 과학기술연구소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재발족됐다가 지난해 1월에야 과학기술원부설 해양연구소로 개칭되어 조사선1척을 가진 연구소가 되었다.

『해양개발의 두뇌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현황과 연구기관의 장비및 연구실태가 이럴진대 우리나라의 해양학은 아직 유아기를못벗어나고 있다고 밖에 할수없어요』

해양연구소 기획예산과장 全永洙씨(34)는 이제부터라도 해양개발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영원히 만회할수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꿈의 世界…바다를 배우자

◇해양개발의 기초인력을 양성하는데는 그 첫걸음이 바다와 친해지는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스킨·스쿠버다이빙은 꿈과희망을 심어주는 기초가된다. 【한국여름해양학교훈련장에서 韓 隆기자】

民族死活 걸린 마지막 資源
어렸을때부터 親近感 갖게

우리민족은 오랫동안 바다를 잊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융성은, 張保皐와같은 바다와 친했던 인물과, 그런 인물이 날수 있게 했던 시대의 산물인것이다.

기나긴 잠을깨고 우리는 또다시 바다와 친하려하고 있다.

문교부는 지난해부터 해양탐구교육 추진방안을 만들어 본격적인「바다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친근감을 가지게 하여 뒤처져온 해양개발의식을 고조시키기 위해서이다. 아직은 초기단계의 교육이라 할수있지만 이른바 동기유발로서는 그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문교부 장학정책의 사령탑인 黃哲秀장학편수실장의 말은 자못 실감이간다. 『예로부터 해양에대한 관심이 적은 나라는 흥하지 않았읍니다. 바다와 친하고 바다를 제패한 나라는 새로운 문명을 발상하고 전파했읍니다. 「지리상의 발견」이 시작된 16세기말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 영국을 비롯한 서양 여러나라의 흥망성쇠는 바로 이 바다와 밀접히 관계하고있읍니다. 우리와 가까운 동양의 일본도 그 맥을 같이 하고있읍니다』

흰머리칼이 많은 黃실장은 나이답지않게 바다이야기가 나오자 금새 얼굴이 달아오르며 어린아이처럼 흥분한다. 그가 바다에 대해 눈을 뜬것은 오래지 않다. 75년초 그가 일본 東京의 수석교육관으로 파견근무했을때의 일이다.

어느날 우연히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가다 매립지에 건설중인 흰건물을 보았다. 멀리서 얼핏 보기는 배모양과 흡사했다. 호기심이 발동해 시간을 내 일부러 찾아봤다. 후네노 가가꾸깐(배의 과학관)이었다. 과학관을 찾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일본을 다시 아는듯했다. 전시장에는 세계의 바다와 그 역사를 한눈에 살필수 있는 온갖 모형들이 갖춰져있었고 수산업 해운 관계 해양과학에대한 자료가 잘 정리돼있었다. 해저목장과 해저호텔이 있고 그사이로 관광잠수선이 유유히 다니는것이었다. 심해공간에 망을 쳐놓고 그안에 삼치나 바다가재등 맛있는 생선을 키우고 사람들은 공해로 찌든 육지공간을 떠나 시원스런 심해호텔에서 여가를 즐기는 미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수있었다.

黃실장은 그제서야 일본의 국민학교1학년 교과서 첫장에 나오는 삽화의 의미를 깨달았다. 우리의「영이와 철수와 바둑이」에 해당하는 교과서 첫페이지그림은, 시원스런 바다속 해초사이로 거북이가 산보하는 바다풍경인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물과 거리를 두고있는가. 黃실장은 그 단적인 예로 해방직후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에 마련돼있던 풀장이 거의 전부 흙으로 메워진 사실을 들었다.

서양과 일본사람들이 바다를보고「탁 트였다」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더이상 오갈데없이『막혔다』는 느낌을 먼저 갖게된다는것이다. 탁트였다는 사고방식은 도전과 모험을전제로 하지만 막혔다는것은 땅에서의 안위를 전제로한다. 바다는 다만 낭만의 대상에 지나지않을 뿐이다.

최근 과학의 힘을 빌어 해양개발은 급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다. 그러나 해양개발만큼 선후진의 차가뚜렷한것은 없다. 몇 나라에 독점되어있다. 인류가 살아나갈 길은 우주공간과 지구의 7할이나되는 광활한 바닷속의 개발만이 유일한 것임을 몇나라만큼은 일찌감치 깨달은것이다. 그들은 바다가「인류의마지막개척지(LAST FRONTIER)」임을 간파하고 있는것이다.

『세계적인 석학모임인 로마클럽은 앞으로 1세기가 막을 내리기전 지구의 자원은 바닥이 날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읍니다. 해양개발이 민족의 사활을 좌우합니다』

다행히 우리도 최근들어 물에대한 관심을 기울여가기 시작했다. 「배만들기(조선업)」가 세계4위에 오른것은 그증거의 하나이다.

『우리의 2세에게 바다에 대한 관심을 갖게하는것은 교육자의 책임입니다』

이미 지금부터 20여년전인 60년대초 프랑스 드골정부는 앞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원자력의 힘을 키우기위해 핵연구소를, 우주공간에의 진출을 위해 우주연구소를, 그리고 바다탐색을 위해 해양연구소를 설치했다. 그 힘을빌어 비록 오늘날 군사및 경제강국과는 거리가 있지만 과학의 선진화는 뚜렷하다. 프랑스엔 정부기구로 바다문제를 다루는 海洋省이 있다.

같은 60년대초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우주개발과 함께 바다자원을 개발할것을 선언했다.

한발늦게 출발했으나 日本은 맹렬히 그러한 나라들의 뒤를 좇고있다.

문교부의 해양탐구교육 추진방안은 아직 첫걸음단계이다. 우선 교육과정에 해양에 관한 지식을 보다 많이 반영시키려하고있다. 현재 각급학교교과서에 해양에 관한 지식을 의도적으로 게재하고있다.

두번째로 각종교육행사에 해양부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과학전람회에도 포함시키고 바닷가 지역에 임해학교를 만들고 어린이들에게 생활을 통한 해양훈련을 갖게한다. 학교마다 배만들기 대회, 파도타기대회, 심지어 스킨·스쿠버경기를 벌이게하고 특별활동으로 잠수부등을 신설케하고있다.

이밖에도 문교부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동·서·남해에 각각 1개씩 해양교육원을 건립키로 했다. 동해에는 주문진에 이미 2억원을 들여 착공, 오는86년 완공을 서두르고있다. 이곳에서는 입체적인 해양교육을 시킬수가있게된다. 【李鍾九기자】

2,592m 温泉孔서 黃酸먹고 서식… 地上의 公害 해결할수도

海底 박테리아

지난 3월31일 제3차 우주비행선 콜럼비아호가 무사귀환하자 이에 뒤질세라 해저탐험도 캘리포니아 베야岬 태평양 아래에서 벌어졌다.

탐험명 오아시스. 전장 7·7m의 해저탐험선 앨빈호는 두사람의 과학자, 1명의 파일러트를 태우고 2천5백92m 해저분화구의 間歇 海底溫泉孔속을 2개월에 걸쳐 탐색했다. 탐험대장은 스크립 해양연구소의 조지·소메로씨. 이 탐험에는 20개 연구단체에서 48명의 해양과학자·기술자등이 참가했다. 탐험선은 溫泉水가 쏟아져 나오는 구멍근처에서 蛤조개등과 1·2m가 넘는 벌레군을 찾아냈다. 間歇속은 고온·고압의 大酸性광물질로 가득차 있었다. 탐험대장 소메로는 해저는 꼭 古生代의 지구의 생태와 똑같다고 느꼈다. 결국 이번 탐험은 2천5백m의 심해에서도 생물체가 희미한 태양의 영향에 구애되지 않고 자체에너지로 생존할수 있음을 밝혀냈다.

여태껏 과학자들은 해저 화산지대에 사는 생물구조는 사우나탕과 같은 온도를 견디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있었다. 그러나 탐험선 앨빈호는 대양의 찬 바다물이 밑으로 분출되어 온도를 냉각시키고 있었으며 20~23cm의 조개가 섭씨 7~10도의 돌틈에서 살고있음을 찾아냈다. 튜브같은 벌레는 석순(石筍)에 매달려 15~20도의 물속에 살고있었다. 다만 화산재속에 사는 좀베이 벌레만이 온수에 살고있었고 이벌레들은 황산과 박테리아를 뿜어대고있었다.

이 박테리아가 탐험대장 소메로에 의하면 이번 탐험의 최대성과. 해저火山口에서의 먹이사슬(Food Chain)의 주역이었다. 박테리아는 자유스럽게 부유하고 있고 또 상당수는 튜브 벌레와 긴 관속에 살고있었다. 많은 박테리아들이 간헐에서 솟아나오는 黃酸속에서 생존하면서 유독한 황산을 영양소로 변환시켜 살고있었다.

탐험대의 과학자들은 황산을 잡아먹는 이박테리아를 이용한다면 황산으로인한 공해물질을 제거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지상에 있는 개나 다른 생물이 이박테리아를 먹고 살수 있다면 황산공해는 해결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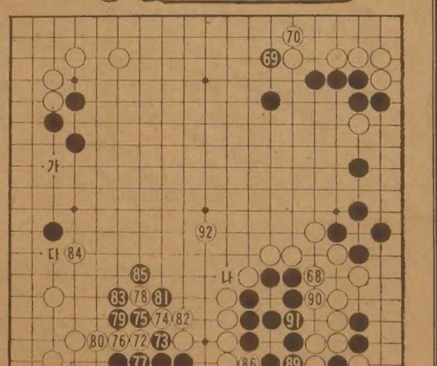
콜럼비아호가 우주에서 소련의 우주전쟁을 막을수 있는 군사적 승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해저탐험선 앨빈의 은 인류에게 공해라는 또다른 전쟁을 없애줄수있는 큰 발견을 가져온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하늘보다 인류의 친구다. 【盧緖煥기자】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4局 第6譜 68~92 (각5시간·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白68까지 일단락되었으나, 白의 외세가 오히려 黑의공격대상으로 부각되어 전체형세는 黑이 단연 우세해보인다는, 趙南哲8단의 해설이있었다. 더구나 黑은 69를 선수하고 71로 요소를 점령했다. 이때 白72는 일단 선수를 활용하자는 뜻이었는데 도전자는 9분동안 망설이다가 강하게 黑73. 이런곳은 순하게 77로 이어주어도 무방한데 굴복을 당하기 싫어서 정면으로 대결한것이다. 일종의 기세. 하나 실은 이것이 두번째 승부처를 빚어내는 계기가되었다. 白은한사코 黑을차단하고 아울러 선수를 잡아 좌변「가」의 곳을 침입할 요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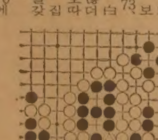


두번째 승부처

黑은「나」의 곳을 보면서 73, 75로 白을 잡더니 85로 따내고 집모양을 갖춘다.

白76에 25분을 소비하고 78에 다시 8분을고심한 名人은 白86으로黑을위협, 黑89면 白87로 넘어가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黑87이 강력한반발이었다. 고분히 白의주문을 들어주면 白92론「다」의곳을 막게된다. 하변은 白88로 89에파호하면 참고도의 黑1、3、다음 좌우로 건너가는수를 맞본다.



허허실실의 흥정끝에 白92 이수가 名人답게 정쾌한호착이었다.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75>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양달 ⑩

『남자 반지는 다이어 삼푼정도면 최곱거예요. 보통 이푼도 괜찮던데. 아무튼 고모가 그쪽에서 해주는거 눈치 봐가며 좋도록해요.』

『뭐 다이어씨이나? 덤신은나 십팔금 반지밖에 안해줬잖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다시속따라 하는거지.』

수지는 수천이 부부가 수표한장 내주면서 이렇게 인씨름 하는걸 삼분다이어 정도 해주라는 소리로 알아들었건만도 묘한 열등감때문에 오푼 다이어로 마음을 바꾸었다. 점점 이상하게 늙어가는 시속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남자반지 오푼은 과람한 것인듯 보석상 주인이 몇번이나 그게 십부것 아니고 정녕신랑거냐고 다짐을했다.

두 사람이 볼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기욱이 앞장 선 곳은 엊그저께 오목이와 인재를 만났던 그 양식집이었다. 기욱은 모르고 있겠지만 인재한테 빰까지 맞는 수모를당한 곳이었다. 얼굴을 기억하고있는 웨이터라도 있을까봐 그녀는 더욱 교만하게 고개를 곳추 세우고 자리 안내를 받았다. 하필 또 그 곳으로 데려온 기욱에게 어떤 저의가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수지는 문득 했다. 그러나 곧 그게 터무니 없는 자격지심일을 알아차리고 애써 명랑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않았다.

그날 오목이와 인재가 앉았던 은밀한 자리는 비어 있었다. 낮게 드리운 아름다운 등(燈) 밑에서 행복에 겨워 꽃봉오리처럼 피어나던 오목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보아온 오목이의 모습중 가장 행복한 모습이었다. 얼마나 인재를 사랑하고있는지 빤히 보이는 것 같았다. 아마 오목이가 행복할수있는 최초이자 단 한번의 기회였으리라.

동생의 단 한번의 기회를 짓밟은 게 자신이란 생각은 벌써 희미했다. 그 놈의 은표주박만 목에 걸고있지 않았으면 좋았을것을….

그녀는 그때 오목이한테 저지른 비열한 짓에 대해 겨우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했다. 그리고 아무쪼록 인재와 오목이가 잘 돼있는 모습을 상상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상쪽으로 그녀는 무심결에 탐닉하고 있었다.

인재가 그일을 트집잡아서 오목이를 내쳤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자책은 커녕 인재에 대한 불같은 분노가 끓어 올랐고, 그건 묘한 쾌감과도 통했다.

가엾은 오목이, 불쌍한 것.

오목이가 인재한테 배신당했다고 가정할때만이 수지는 오목이가 동생으로써 불쌍했다. 그녀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오목이를 동생으로써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인재의 배신을 배개로 해야만 비로소 오목이에게 핏줄의 정을 느끼는게 가능했다.

수지가 오목이한테 저지른 그 못할 노릇이 벌써 희미한것 처럼 인재를 사랑했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인재도 그녀의 과거의 애인조차도 아니었다. 오늘 하룻동안에 기욱이한테 흠뻑 기울어진 마음은 인재를 과거의 애인으로 인정하기조차 싫었다. 그런 과거있는 여자이기가 싫었다. 인재는 다만 오목이의 애인이면 족했다. 오목이를 하루아침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용서받지 못할 남자여야만 했다. 수지는 인재의 배신이 분해서 눈물마저 핑 돌았다.

『왜 그래 어디 불편해?』

기욱이 칼질을 하다말고 근심스러운듯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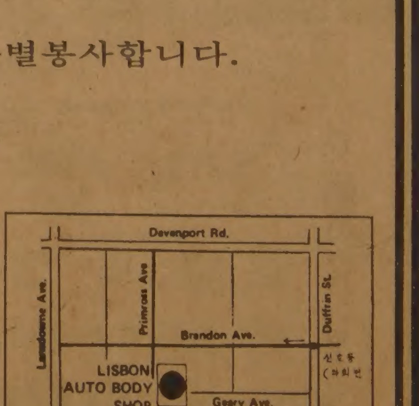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LISBON AUTO COLLISION INC.

❋여름철 교민특별 써비스❋

❋ 7월1일부터 새로운 장비와 시설로 교민 특별봉사합니다.
❋ 사고·보험관계 일체 처리
❋ 1년 개런티—수리후 문제에 대한 책임보증
❋ 수리중 차 무료로 대여함.
❋ 철저한 신용
❋ 24시간 토잉써비스 (531—9942)

35 PRIMROSE AVE. TORONTO
☎ : 533—8507, 8(B) 439—6548(R) 대표 이영두



한국일보 (특집판)

지구村의「제7大陸」에 꿈을건다

人類의 마지막 寶庫

底棲생물연구

해양학의 발달은 底棲생물연구로 시작된다。한국의 경우 流泳어류 내지 플랑크톤의 연구는 상당한 수준에까지 올라갔으나 底棲식물의 경우는 분류단계마저도 가지 못하는 불균형적인 현상이라고 해양학자 洪在上박사(36)는 말했다。

底棲생물은 말하자면 바다밑바닥에 사는 생물。미역、다시마같은 식물도 있고 굴이나 게같이 움직이는 동물도 있다。

흔히 육지에서 어디까지가 그나라의 領土로 인정되느냐하는 문제를 따질때 바다의 깊이를 단위로 2백미터까지의 대륙붕이 그 기준으로 인정돼 왔었다。결국 육지에서 이어진 바다중 깊이가 2백미터이내는 자국육지로 인정된다는 것。

이런 육지와 동일개념인 沿岸의 바다밑은 바다를찾는 모든 관심의 첫대상이 돼야한다는 것이 洪박사의 견해。

때문에 바다밑은 지형에서 부터 물결의 이동상황、그속에 붙어사는 생물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 설립돼있는 해양학과를 보면 서울大、仁荷大、釜山水産大등 5개대학중 저서생물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곳은 아무데도 없다。

플랑크톤연구、어류학등은 역사도 길고 분류학도 정리돼 있으나 유독 바다밑생물에 관해서는 아무런 체계적연구도 없다。

다행이 최근들어 굴、김등의 養殖業이 발달되면서부터 이 해저생물학이 좀 인기를 모으고있을뿐이다。그러나 양식업으로 인한 底棲생물학연구 역시 개체 저서생물학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있어 기초학문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洪박사는 주장했다。

굴양식을 할때 양식장의 조건、시설물 배치등은 그런대로 잘 처리하나 굴양식장에 굴대신 진주담치、미더덕등이 생성될때 그원인규명을 해내지 못하는것등은 底棲생물학의 기초과학이 부족하기때문。

이런 底棲생물학의 발달이 늦은 중요한이유는 잠수기술의 발달이 늦은것。바다밑을 알기위해서는 산소통을 짊어지고 바다밑까지 내려가 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실제 스쿠버·다이빙이 일반에 보급되기 시작한것이 1960년대 중반이후여서 우선 이런 해저탐색의 기회가없었다。

洪在上씨는 72년 釜山水産大를 졸업한후 75년 프랑스 마르세유대학 해양환경대에 진학하여 80년『바다오염이 底棲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저서생물학을 공부하려면 우선 스쿠버·다이빙 자격증을 따야한다는것。

스쿠버·다이버들은 다이빙 스쿨에서「바다의 윤린」、「잠수에 의한 인체구조의 변화」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公認잠수사자격증을 얻은후 본격적인底棲생물연구에 들어간다고 洪박사는 말했다。

洪박사는 80년 한국에돌아온후 한국과학기술원산하 해양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국해안의 저서생물 탐사를 실시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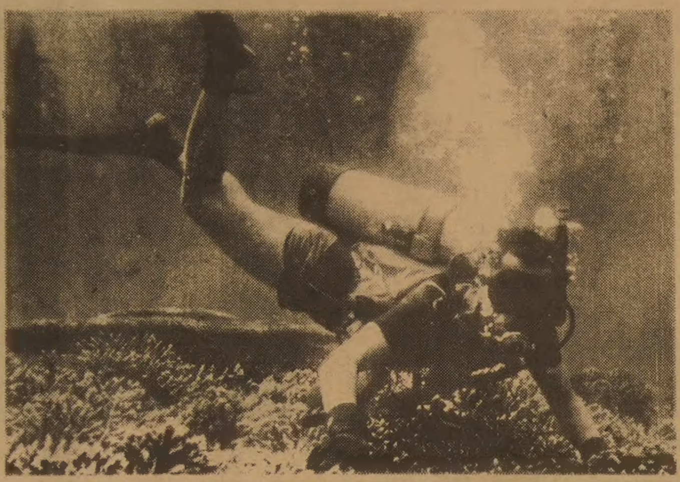
우선 우리나라바다의 밑바닥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는가부터 조사해 놓겠다는 것이다。

『아직은 외롭지만 최근들어 스쿠버·다이버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곧 훌륭한 동조자들을 만나게 될것』이라고 洪박사는 말하면서 한없는 바다밑의 신비를 예찬했다。

洪박사는 아마도 83년末쯤에는 한국의 底棲생물분류를 완성시킬수 있을것이라면서『그땐 한국 해양학자들은 자기나라의 바다밑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있는지도 모른다는 부끄러운 비난을 받지않게 될것』이라고 말했다。【鄭逸和기자】

◇底棲생물학의 확립을 주장하는 洪在上박사。

水産大에도 專門科 없는 荒蕪地
잠수技術 개발로 落後性 벗어야



海底 보물

新安引揚分 1兆원 추산
울릉도 앞바다에도 金塊

보물은 개펄에 묻혀있었다。76년 新安앞바다 보물선 사건이 터진것을 깃점으로 눈이 떠지기 시작한 深海탐사는 아직 보물선 인양작업을 끝내지 못한채 숱하게 퍼져있을 바다의 寶庫가 그저 물결에 파묻혀있다。

新安보물선은 많은 얘기를 남겨왔다。공식 인양보물만도 1만6천점。그값은 무려 1조원을 넘는것으로 추산되고있다。해군심해잠수팀을 동원한 공식인양반외에도 산소공급기한대、잠수복한벌만 갖고 도굴해낸 보물도 줄잡아 1만점、그 가격은 아마도 보물급만 주워내왔을것이므로 공식인양반의 그것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것이라는 評。

침몰선은 2년여에걸친 긴 인양노력으로 금년안으로는 배모습을 육지에옮겨 놓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 신안보물선사건은 적어도 두가지面에서『海洋국가 한국』의 눈을 번쩍 뜨게했다。

하나는 바다가 寶庫라는 것。바다는 오랫동안 漁民들에게 생활터전이 돼왔고 또 半島의 탄탄한 피부역할을 해왔지만 그 밑바다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다는것은 미처 몰랐다。20세기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곳곳의 해안에서 찬란한 金銀덩어리들이 속속 건져져나와 노다지를찾는 탐험가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지만 설마 한국 개펄에 그런보물이 묻혀있을것이라는것은 별로 생각지 않았던것。

신안보물선의 인양팀을 지휘한 海軍 심해잠수반의 呂武瀨준위(45)는『건져도 건져도 끝이없는■寶物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한국해안 온통이 보물로 가득찬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80년 對馬島앞바다에서 일본의 한 해저탐사반이침몰한러시아戰艦으로부터 1천3백50억원상당의 白金塊를 건졌으며 울릉도 앞바다에도 이와 맞먹을만한 露日전쟁당시의『金塊를실은露전함』이묻혀있는것으로 판명됐다。

統一新羅期에 형성됐던 거대한 張保皐의 해상왕국、高麗·朝鮮의 해상통로가 주로 남해、西海岸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므로 한국자체의 바다밑저장도 엄청날것으로 추측되고있다。

신안보물선이 도굴단들인『머구리』들에의해열심히 뜯기고 있을때까지만해도 한국에는 海底考古學이니수중탐사학이니하는것이 한갓異國語일따름이었다。

바다로 둘러싸여있으면서도 그바다밑이 어떻게생겼는지를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도굴꾼들이 위치를 찾아놓은 신안보물선만해도 해군의 인원·장비를 총동원했지만 6년이 지나도록아직 선체인양까지를 끝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해저탐사의 세계수준은 이미『不可能이 없는』단계이지만 지난 80년노르웨이 海底탐사대들이 얼음처럼 찬北海베렌츠海底에서 소련 金塊 5·5톤을 건져올렸다。이베렌츠海작업이후『바다의 어디든지 보물이있는곳만 확인되면 인양은 간단한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앞바다의 경우 休潮기간이 짧고 視界가 흐린 단점이 있긴하지만 수심은 불과 20미터정도이다。20미터수심을 놓고 6년을소비했다면 남서해 어느곳에 어떤『머구리』가 또다른 보물선을 찾아내 주더라도 그 결과를 보기위해서는엄청난 기간을 기다려야할판이다。차라리『머구리』의 발굴권을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해안탐사를 촉진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른다。【鄭逸和기자】

해양資源에 눈 돌려야
다가오는 太平洋 경제時代 대비

생각컨대 海洋은 인류가 자연에 挑戰해온 이래「인류최대의 寶庫」로서 20세기 文明이 정복하여야할 마지막 挑戰場이다。

지난 60년대말 海洋과그 資源은「인류공동의 유산」이라는 국제적인 宣言과함께 국제 해양질서가 새로이 모색되었으나 오히려세계각국은 그중요성에 눈을 뜨고 다투어 2백海里 經濟水域을 宣布하여왔다。

이러한 2백海里經濟水域 선포는 국방、漁撈、占有水域의 意義를 넘어서 각종海底資源保存등으로서 깊은 관심이 높아졌다。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展開는 오일 쇼크에 따른 근래의 海底石油개발 붐에서보듯、海洋은 陸上에서 점차 고갈되어가고있는 天然자원을 앞으로 수세기에 걸쳐 풍부히 공급하여줄수 있는 새로운 領域으로 간주되고 있기때문일 것이다。

일찍부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소련、서독、일본을 중심으로 先進國들은 해양자원개발에 관심을 집중하여 水産資源、海底鑛物자원、해양에너지자원、해양환경보존에 큰노력을 기울여왔다。

해양은 인류에게 人口과잉에 따른 食糧및 空間의 確保、經濟成長에 必須不可缺한 광물및 에너지자원、國家安保문제등에 대한 해결책등을 제시하고 있다。

賦存자원이 貧弱하고 국토가 협소하며 인구가 조밀한 우리나라로서 3면의 沿海를 활용、개발해야할 필요성은 그 어느나라 보다 절실한 것이다。

우선 해양의 國家社會的인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해양은 앞으로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開發領域이 될 것이다。資源貧國인 우리나라로서는 막대한 資源、에너지、공간등이 존재하는 해양의 개발이용에 주력하지 않을수 없는데、특히 우리 周邊海域에는 광대한 대륙붕이 발달되어있어서 다양한 海洋자원의 부존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로 해양개발은 新規사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長期安定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무한한 개발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은 우리의 새로운 投資분야이며 이의 개발은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章이 될 것이다。

셋째로 해양개발은 우리나라 安全保障에 절대적으로 기여할수 있다。우리주변의 해역은 強大國의 이해가 직결되는 주요한 海運通路의 길목이다。따라서 이들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및 海洋防禦 기술개발이 반드시필요하게될것이다。

네째로 해양개발은 국제적으로 우리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우리가 해양개발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을추진할 경우 自體的인 해양개발능력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해양운재에 대한 우리의 發言權과 旣得權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시대에 꽃피우리라고 예상되는 太平洋經濟圈의 구체화와 더불어 우리로서는 마땅한 준비가 요구된다 하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西海와 南海의 넓은 대륙붕은 여러 광물자원의 부존을 기대할수 있는 地質學的인여건을 갖고있으며 현재 韓日간에 공동추진되고 있는 대륙붕 石油試錐작업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밖에 우리나라 沿近海에는 砂鐵、砂金、모나자이트등 유용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개발사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우리나라 해양자원에 대한 調査、探査、研究조차 매우 미약한 실정에 있으며 해양산업도 아직 초기단계로 국내수요가 全無하며 專門海洋기술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해양개발 추세에 따라 해양구조물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있으며 半潛水式 석유시추선을 비롯해서 海底石油생산 플랫폼과 대규모 오프쇼어 (Offshore) 해양설비가 國內에서 한국기술진에 의해 건조、제작되어 선진국에 공급되고있다。

특히 現代는 지난 79년、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상 大役事로 꼽히는 주베일産業港의 대규모 海洋構造物인 OST (Open Sea Tanker Terminal)를성공적으로 완공한 것을 비롯、유럽 北海油田에 투입될 반잠수식 시추선을 국내 기술진에 의해 건조 완료했고 중동、동남아지역、호주、인도등의 해역에서 해저석유를 생산하는 각종플랫폼및 부대생산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인도했거나 현재 턴·키 베이스로제작、건설작업을 수행중이다。

이렇듯 해양자원개발에 필수적인 제반설비의 국내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정부의 효율적인 지원아래 민간주도로 해양개발산업이 추진될수있다는 가능성과 아직은 유치한 단계에 머물고 있는 해양산업전반이 획기적으로 발전할수있는 밝은전망을 던져주는것이라고 하겠다。

鄭周永 (現代그룹會長)

◇鄭周永회장

災害의 현장
기름탱크船 좌초무방비
오염되면 魚貝類떼죽음
國家的 차원서 대책서둘러야

『단1드럼의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었을때 1시간이내에 1만평방m넓이의 해면이 0.1mm두께의 기름막(油膜)으로 덮이는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립니다。연안어업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선박교통량과、특히 전 해상운송물량의 41%가 석유인것을 생각하면 대형 기름유출사고의 가능성은너무나높습니다』

한국檢定公社(KASCO) 金石祈(사진)사장은해난사고조사에좇아다니다보니우리나라가 기름유출에의한 해양오염에 너무나 무방비상태인 것을알게됐다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폐·하수에의한 수질자체의 오염과 함께 기름유출은 해양자원을 폐화시키는 2대요인이다。

그러나 이를 다룰 전담부서나 기술、장비는물론 제대로 이론을갖춘전문가한사람도 아직없다。

지난해8월22일 蔚山항입구에서 짙은 안개속에 파나마선적 셀릭스號(6천7백43톤급화물선)가 한국 B해운소속 1만4천톤급화물선의 기관실을 받아 침몰시켰다。

두배가 다 유조선이아니어서몇천、몇만톤의 대량기름유출은 없었고 일부 지방신문에만 간단하게 취급됐을뿐 흐지부지된 해난사고였다。

그러나 침몰된 화물선의 기관실에서 유출된 불과 2~3백톤의 기름은 조류를타고 순식간에 方魚津에서 飛陽里까지 해안선25km、폭12·8km의해면을 뒤덮었다。

이 사고를 공식집계한 피해만도 양식장등 어업피해액 2억원、청소비용에 2억원이 들었다。

또 80년12월 동남아지역으로부터 原木을 싣고 仁川으로 가던 S해운의 5천톤급 화물선이 牙山만에서 좌초、1백30톤 기관실기름이 유출된 사고때도 15억2천만원의 어업피해와 8천만원의 청소비용이 든것으로 집계돼있다。

기름이 일단 바다에쏟아지면 해류와 조류를탄 확산속도 때문에 피해범위가 엄청나게 빠르고광범해진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고후의 처리。기름제거를위한 청소가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점이다。우선 전문가가 한명도 없으니 사고에 대비한 장비나 특수계획이 있을리없고 사고가 나면 1、2주일씩걸려 이미 피해가 커질대로 커진후 외국인을 불러다 물리적인 제거작업을 펴는 것이고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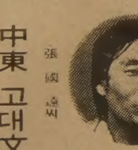
2차오염을 유발시킨다 화공약품을 쓰는 것도 고해서 선진국에선 이미 반대가 큰데 우선 우리는 돈과 기술·장비의 부족으로 일단계처리과정인 기름 걷어내기부터 제대로 못하고있는데다 2단계처리를위해 사용하는 화공품도 대부분 불량품이며 기름분해 보다는 기름과엉겨 무겁게 된 덩어리로 물속에 가라앉히는 침강처리방법을쓰는경우가많다는것。

우선 눈에보이는 시꺼먼 기름을 없앴을뿐이지 물속의 오염、해양퇴적에 의한 오염을 더심화시키고 있는것이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기름유출사고의 가능성을 뻔히 보면서 무대책、무방비로 있을수만은 없다。

큰빌딩에서 불이 났을때 빌딩주인보고 불을끄라고 하지 못하는것처럼 이문제도 국가차원에서 어떤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金石祈사장은 주장하고있다。【兪曉錫기자】

中東 고대文化 추적… 異色 運命論 펴
東洋思想과의 脈絡도 照明



張國遠씨

西獨에 波紋던진 한국인論文
「博士소송」의 張國遠씨、國譯版도출간

西歐文化의 방향감각상식에대한 근원추구의 일환으로 고대앗시리아文化의 운명론을 연구하여 西歐철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한 한국철학도가 문제의 서적을 한국말로번역·출판했다。

張國遠씨(44)가쓴『中世앗시리아의 역사서사시』와『세계운명학의 발단과 그전개』。

이두책중『中世앗시리아의 역사서사시』는 張씨가 독일 뮌스터大學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것이고『세계운명학』은 역시독일의 교수자격논문으로 제출한것이다。

『中世앗시리아의 역사 서사시』는 古代 수메리아文化에서 기원전18세기의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大王代에 이르는 긴 中東古代史를 고 그속에 남긴 相對的 存在개념을 찾아낸것。張씨는 이논문을 쓰면서 두개의 가설을 세웠다。

하나는 現代의 서구사상 몰락현상이 지나친 合理主義、개인영웅주의、自我主義의 결과란는것이고 다른하나의 가설은 고대 수메리아文化가 단순한 기복주의가 아니고『命題있는 논리적설명』이라는 것이다。

西歐문화는 르네상스期를 거치면서 서서히 合理主義、개인영웅주의로 흘러 결국 상대방 (DU의개념)이 없는 나자신 (ICH의식) 主義로 고립돼 버렸다는것。

니체는 개인영웅주의의 극치로『신은 죽었다』라고 말한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張씨는『나』를 지배하고『나』와 대화하는『당신』의 개념을 西歐文化가 상실하게 됨으로써 서구사상이 병들게 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당신』의 개념이 고대에는『운명』이란 개념으로 나타나며 수메리아文化에도 이런『나와 당신의 관계』에 관련된 운명론이 성립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張씨는 [illegible] 이 운명론은 [illegible] 수메리아뿐만아니라 東洋의 [illegible]사상 또는 고대의 天命사상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中東의 고대문화와 東洋의 고대사상은 운명이라는 공통분모를통해 맥락을 같이하고있다는 주장이다。

논문은 독일어로 쓰여졌으나 10년이상연구에의한 張씨의 방대한 어학실력을 동원、수메리아의 설형문자、바빌로니아의 고문자、히브리古代語、앗시리아語등을 섞어 내용을 거의 혼란스럽게 할정도로 고증에 철저를 기했다。

張國遠씨는 서울大국문학과를 나와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마친후 渡美、美듀크대학에서 中近東古代文化를 공부한뒤 독일 뮌스터대학으로 건너갔던것。

張씨는 두책의 서문에서『이 학설은 세계어느학자도 감히 노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약간 도전적인표현을 쓰고있다。

그가 뮌스터大學으로 건너가 장장5년간 고대中東문화의 巨星인 폰·소덴교수밑에서 연구한후 문제의 학위논문을 제출했던것인데 논문내용이 소덴교수의 주장과 정면으로 相反돼결국 학위수여가 어렵게되어 불미스런일까지 일어났다。

張씨는『中世앗시리아의 역사서사시』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해놓고 심사기간인 1년을 다기다렸으나 학위인정도하지않고 그렇다고 제출논문의 이론적반박도 없었다。독일법에 의하면 학생이 학위논문을제출하면 1년이내에 학위수여를 결정하든지 이론적으로 不合當하면 심사위원의 반박론을붙여 再제출 명령을 내리도록돼있다。

결국 張씨는 논문심사위의 無자격성내지 不法性을 이유로 본인의 학위논문은 통과된것으로 본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뮌스터대학총장앞으로 박사명칭을 사용하겠다는 공식통보를 보냈다。

그는『철학박사 장국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제의 [illegible] 논문을 출판、西歐철학계에 배포해 버렸다.

뮌스터대학에서는『張國遠박사』를 상대로 박사학위도용혐의로 [illegible]에 제소하게됐으며 이 소송은 고등법원、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가 [illegible]에서『張國遠박사』[illegible] 인정했다。

張씨는 현 시몬大교수인 부인 李連淑씨(영양생리학)가 자신의 [illegible]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어 만족한 심정이라면서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한 西歐철학계가 자신의 도전으로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지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鄭逸和기자】

女子의 마음
안생긴 얼굴

만 4살된 아들녀석을 한국에 보낸지 석달째。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란 녀석이라 그런지、장사한답시고 밖으로만 나도는 엄마、아빠의 노력이 부족해서인지、우리의 말과 풍속을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도『경태 못 생겼지?』하고 놓으면『아니 생겼어』하는 미국식 대답을 하기에 언젠가 시간을내서 한국에 직접 데리고 가서 가르쳐줘야겠다고 벼르고 있던 어느날이었다。유치원에서 돌아온 녀석이 그림을 그려 왔기에 들여다 보고 그림이 잘못된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했더니 이녀석 대뜸하는 말이『이것은 바로 나의 인생이지 너의 인생이 아니야』하는 것이었다。그소리를 들으니 아이쿠 안되겠구나 싶어서 다부진 마음먹고 귀국하는 친정어머니편에 서둘러 딸려보내면서 혼자만 자라서 부족한 협동심도 깨우쳐 줄겸 언니네 집에 두조카가 있으니 그곳에 데려다 주시라고 말씀 드렸다。그리고는 너무 어린것을 보냈나 싶어 사뭇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두달이 지난 어느날 의젓하고 잠난기가 붙은 사진을 받고 잘왔다는 소식도 전할겸 전화를 했더니 경태가 직접 받아서 유창한(?) 한국말로 인사하고『엄마、경태 사진속에서 잘 생겼지』하는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대견하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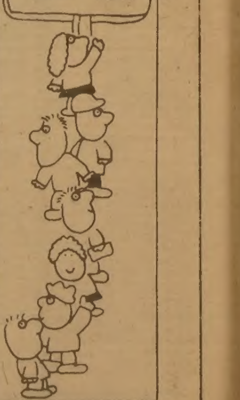
남들은 하나밖에없는 어린것을 떼어놓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지만『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있듯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내나라 얼을 몸에 익게 해주고싶다。그래서 요사이는 의젓해진 개구장이 사진을 가게 캐시박스 옆에 붙여놓고 일이 힘들고 보고 싶을때면 사진속의 활짝 웃는 얼굴과 함께 그 또랑한 목소리를 기억하면 그저 흐뭇하기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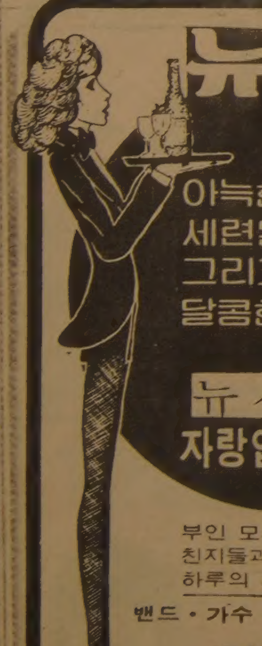
그러면서 막내아들처럼 정성껏 돌보아 주고 계신 언니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그리고 말(言)뿐이 아니라 한국의 예의범절、풍속、법까지 모두다 익혀오라고 욕심을 내고싶다。

【김상희·660 East Market ST Salinas CA. 93905】

구독신청
533－236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도매상

과일·채소·화초

●저렴한 가격 ●신용본위

($150이상 배달합니다.)

대표 : 곽 덕 렬

463 Carlaw Ave. ☎ : 465－8167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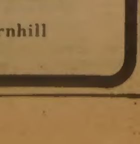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루사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 291－9590
ZAIDI& ASSOCIATES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虛榮·탐욕으로 엄청난結果
"法定최고刑 마땅"
李圭光 피고엔 5년
林在琇10년·邊康雨7년·孔德鍾7년·朱昌均5년
起訴56일만에 論告 "파렴치한 번명에 國民 분노"
서울刑事地法 어제 어음사건 32人結審
李·張 詐欺·배임등, 李圭光 알선收財罪

夫唱婦隨의 斷罪

◇단죄를받으러 묵묵히공판정으로 들어가고있는 李哲熙·張玲子부부.

李哲熙·張玲子부부에게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이 구형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제2과장 成敏慶 부장검사는 28일하오 李·張부부어음사기사건의 관련피고인 32명 전원이 출정한 가운데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李·張부부에게 사기및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등을 적용, 이같이구형하고 미화 1백만3천달러와 일화 1천3백만엔의 몰수 또는 추징을 병과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광업진흥공사사장 李圭光피고인, 전조흥은행장林在琇 피고인, 日新제강회장 朱昌均피고인과 사채업자들에게도 각각 법정최고형을구형했다.

검찰은 李圭光 피고인에게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5년과 추징금1억원을 구형했고 共榮토건회장 邊康雨피고인(47)과 사장 邊泰洙피고인(48)에게는 업무상배임및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7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日新제강회장 朱昌均피고인(61)에게는 배임증재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조흥은행장 林在琇피고인(51)에게는업무상배임및배임수재죄를적용 역시 법정최고형인 징역10년과 추징금1억5천만원을 구형하고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59)에게는 업무상배임및 배임수재죄를적용,징역7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으며 사채업자들에게도 단기금융업법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씩을 각각구형했다.

한편 張玲子피고인의 첫남편 金守哲피고인(52)에게는 징역5년(예비청구 징역2년)과 벌금50만원이 구형됐다.

이밖에 조흥은행의 지점장 4명에게는 업무상배임죄를 적용, 징역2년씩을, 大和산업간부들에게는 징역 2년에서 1년씩이 구형됐다.

成부장검사는 논고문을 통해『이 사건은▲남다른 탐욕과 허영심 남비벽을 가진李·張부부의 일확천금을 노린 어처구니없는 망동과 ▲일신상의 영달과 이익만을 탐하는 일부 고위 금융인의 구태의연한 작태 ▲권력주변인물이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착각하는 일부 기업인의 시대착오적 의식구조▲세칭 지하경제의 그늘에서 독버섯처럼 서식하는 악덕사채업자들의 농간등이 합쳐져 국민전체에 피해를 입힌 미증유의 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成부장검사는 이어 李·張부부에 대해『자신들의 무모한 허영심의 충족을 위해 3백억원의 사업자금을 단시일에 마련하겠다는 망상아래 결제능력도 없이 기업의 어음을 사취, 결국 기업을 도산시킴으로써 선의의 채권자는 물론 온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成부장검사는『허황된 탐욕으로 엄청난 결과를 야기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법정에서 관련기업체를 선의로도와주려고 사업자금을 지원했고 국가를 위한 애국충정에서 어음거래를 시작한양 잔꾀를 늘어놓아 국민을우롱하여금 다시한번 분노를 금치못하게 했다』면서『이들 범의 범행동기와 수법및 결과와 아직도 철면피한 변명을 늘어놓는 파렴치하고 방자한 행동에는 법정최고형으로 처단하는게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이어 李圭光피고인에 대해『경력과 신분에 비추어 사회에 공헌해야할 지도급 인사가 李·張부부의 어음사기사건에는 직접 관여하거나 비호 또는 청탁한 사실은 없다해도 한·조흥은행 협력인가 청탁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사실에 대해서는 묵과할수없다』고 밝히고『피고인이 법정에서 가족간에 있는 의례적인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을뿐아니라 범법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려한야 한다는 법정신에 따라 엄단돼야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또 전조흥은행장 林在琇피고인에 대해『李·張부부가 사취어음의 결제를 목적으로 당좌대월을 받기위해 계획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해 5백여원의 예금을 유치해 주면서 李哲熙의 경력과 張玲子의 특수신분을 과시하자 피고인은 장차 李圭光을 자신의 배경으로 삼아 더한층 일신의 영달과 출세욕에 탐닉한것이 부정대출의 동기가 됐다』고 밝히고『본건 부정대출은 금융계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되었다기보다 피고인 개인의 어리석은 사고와 처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법정최고형으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또 전 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에 대해서도『日新제강회장 朱昌均으로부터 뇌물을받고 재무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日新제강에 계속해서 사채지급보증을 해주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법정에서 정당한 대출을한양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뇌물수수여부에 관해 계속진술을 번복한것은 일말의 개전의 정도 엿볼수없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이어 공영토건및日新제강의 간부들에 대해『피고인들이 李·張부부와 거래를 시작할 때 특수신분 특수자금 운운하는 그들의 말을 막연히 믿고 기업자금을 음성적으로 조달하고 특수신분의 그늘에 안주하며 기업을 경영하려한것은 기업을 경제원칙에 입각치않은 비합리적 방법으로 운영코자하는 그릇된생각을 갖고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라면서『이같이 시대착오적인 경영활동을 해옴으로써 결국은 회사를도산시켜 기업을믿고 투자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뿐만아니라 기업에대한 국민의 신뢰를여지없이 실추시킨 점으로봐 마땅히 법의심판이 뒤따라야 한다』고 논고했다.

검찰은 이밖에 사채업자들에게는『李·張부부등 이사건 관련자모두가 궁극적으로는 도산한는등 파멸에 이르렀으나 반대로 이익을 취한자들은 오직 이들 사채업자들뿐이며 이들이 악약한 사채시장이야말로 李·張부부가 이상번 범행을 계획하게 한 온상이 되었다』고 지적하고『이들의 부도덕성은 국가나 사회등 아무것도 염두에 두지않았다는 점에서 볼때 이들을 처벌할수있는 단기금융업법의 법정최고형이 2년밖에 되지않는것이 오히려 안타깝다』고 단죄했다.

百만弗·천3백만엔 追徵·몰수 李·張

◇피고인별 구형량

피고인	나이	직업	죄명	구형량		법정최고형
李哲熙	59	大和산업회장	사기, 업무상배임, 배임증재, 외환법	징역15년 몰수80만달러	추징20만弗 5백만엔	15년
張玲子	38	〃 명예회장	〃		몰수 8백만엔	15년
金濟振	53	〃 사장	업무상배임	징역2년		10년
尹錫鎵	35	〃 이사	〃	징역1년		10년
金正一	38	〃 경리부차장	〃	〃		10년
金勇男	38	〃 비서실차장	외환관리법	징역2년		3년
林在琇	51	전朝興은행장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징역10년	추징금1억5천만원	12·5년
李斗淳	51	〃 영업부장	업무상배임	징역2년		10년
徐斗寅	47	〃 半島지점장	〃	〃		10년
金重壽	51	〃 南大門지점장	〃	〃		10년
金述鎬	48	〃 德壽지점장	〃	〃		10년
邊康雨	47	共榮토건회장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징역7년		15년
金東義	47	〃 감사	〃	징역5년		15년
邊泰洙	48	〃 상무	〃	징역7년		15년
邊衡佐	44	〃 총무이사	사기, 증권관리법	징역3년 벌금50만원		10년
共榮		법인체	증권관리법	벌금2천만원		벌금형
朱昌均	61	日新제강회장	배임증재, 수표법	징역5년		6년
孔德鍾	59	전상업은행장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징역7년	추징금5천만원	12·5년
裵吉勳	35	日新제강사장	부정수표법	징역2년		5년
李圭光	57	전 광업 진흥공사사장	특가법	징역5년	추징금1억원	5년
金守哲	52	張여인 첫남편	특가법 단기금융업법	주청구 징역5년, 예비적청구 징역2년 벌금50만원		5년이상
郭慶培	35	사채업자	단기금융업법	징역2년		2년
金鍾茂	45	〃	〃	〃		2년
田永釆	36	〃	〃	〃		2년
張東浩	49	〃	〃	〃		2년
金永哲	36	〃	〃	〃		2년
黃赫老	49	〃	〃	〃		2년
李殷圭	51	〃	〃	〃		2년
趙祥弼	45	〃	〃	징역1년6월		2년
徐香蓮	55	〃	외환관리법 단기금융업법	징역3년		3년
宋正光	42	전 안기부직원	뇌물수수	징역2년	추징금1백만원	5년
任文淳	40	大和산업부장	뇌물공여	징역1년6월		5년

被告人들 求刑순간 表情굳어
法廷밖엔 雷雨…가족·친지등 2百50여명 방청

○…이날하오2시30분부터 계속된 결심공판에는 피고인 32명전원과 변호인 28명, 피고인가족과 친지 동료직원등 2백50여명이 나와 법정안은 무더위와함께 발디딜틈도없이 빽빽히 들어찼다.

피고인석은 李·張부부가 맨 앞줄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한줄에 7~8명씩 4줄로 앉았고 변호인들은 변호인석이 모자라 방청석앞 세줄을 모두 차지했고 이 때문에 방청석을 차지하지 못한 1백여명의 방청객들은 빽빽히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하오3시10분께 이사건의 주역검사인 成敏慶부장검사는 22페이지에 달하는 논고장을 차분한 목소리로 약 35분간 낭독해 내려갔다.

成부장검사의 논고가 계속되는 동안 李·張부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있었는데검사가 구형을한는 순간 저마다 표정이 굳어졌고 방청석에는 기침소리하나 없이 조용했다.

한편 이날 첫변론에 나선 李·張부부의 변호인 文相翼변호사는『2배수 어음발행이 유통용인가 담보용인가는 지금까지 공판중 피고인들간에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있어 어느것이 진실인지 가릴수가 없다』면서 사기죄의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文변호사는『경제는 흐르는물과 같은데 어느시점에서 막으면 파탄이 오므로 李·張부부는 결국 사업을 크게 일으키려는 야심에 차 있었으나 사기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변호했다.

○…文변호사는 또『李哲熙피고인은 군에서 3번이나 부상을 당하고 훈장을 70여개나 받았으며 나라를 구하는큰 공훈을 세운 사실이있고 張피고인은 평생의 꿈이 절을 세우고 아동복지재단립과 李哲熙씨의 착실한 아내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점등을 미루어 두피고인의정상을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사기록 1만5천여페이지
李·張結審공판 녹음테이프도 30여개使用

○…건국이래「최대의 경제사건」으로 불려지는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으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무려 1만5천여 페이지에 달하고 공판조서만도 5천페이지에다가 법정에서의 녹음테이프도 30개나 사용되었다.

○…관여검사들은 일요일인 지난25일에도 아침10시께 모두 출근, 저녁6시까지 논고작성을 하느라고 진땀을 뺐다.

대검중앙수사부2과장 成敏慶, 4과장 辛建부장검사를 비롯 金相洙 李明載 鄭烘原 朴柱宣 金相喜 鄭相明 安大熙검사들은 각자맡은 부분별로 논고를 작성해 구형량만 비워둔채 李種南대검중앙수사부장실에 모여 대조·검토를 했다.

高速道 2시간이상 走行화물車
휴게소서 休息의무화
어기면 罰金물려

치안본부는 8월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2시간이상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는 휴게소에서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위반자에게는 2만원씩의 범칙금을물리도록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모든 화물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진입때 통행권 뒷면에 진입시간을 기록한 도장을 받고 전국 28개 휴게소에 비치한 무인스템프로「휴식확인필」이란 도장을 찍어 2시간 이상 쉬지않고 운행하는 것을 막도록했다.

이같은 화물차량휴식의무제는 화물차량운전자들이 무리한 운행으로 과로가겹쳐 사고를 자주내기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도로교통법 47조11항과 동법시행규칙 18조3항3호(운전자및 승객의 준수사항)에 따라 실시하는것이다.

慶北에도 해갈
大邱·榮州45㎜

전국에서 가장오랜 가뭄이 계속되던 경북지방에 27일밤부터 28일하오까지 해갈에큰 도움을 줄만한 비가내렸다.

28일하오2시 현재 경북지방에 내린비는 大邱·榮州지방이 45㎜, 浦項 35.6㎜였고 그밖의지역에도 10~20㎜가량의 비가 내렸다. 安東지방에도 59㎜의 비가내렸다.

중앙기상대는 29일 서울및중부지역에 소나기가 내릴것으로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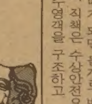
한편 중앙기상대는 제9호태풍 앤디(ANDY·중심기압 9백40밀리바)가 28일정오현재 대만남동쪽 2백70㎞해상(북위21.5도 동경1백24도)에서 시속22㎞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고밝혔는데 이태풍의 중심부에서는 최대풍속 초속50m에 6~9m의 높은파도가 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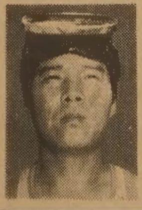
家計수표책 發行때 수입印紙 꼭첨부를
銀行監督院

【속보】은행감독원은 은행이 가계수표책을 발행할때반드시 수입인지를 첨부하라고 27일 각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은행감독원은 이지시에서 앞으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지않고 가계수표책을 발행할경우 이를 문책하겠다고밝혔다.

은행감독원은 또 지금까지 수입인지를 첨부하지않고 발행된 가계수표의 수량을조사, 해당액수를 추징할 방침이다.

광나루「물개」
江東여름 警察署 朴昌吉경사
6년간 690명 살린 水上베테랑





서울江東경찰서 광나루여름경찰서 朴昌吉경사(42·사진)에겐「광나루 물개」와「철새」란 더블·닉네임이 붙어있다. 매년7월이 되면 철새처럼 광나루를 찾아 물개처럼 한강을 헤치다 여름이가면 훌쩍 떠나는 팔자때문에 얻은 별명이다.

朴경사는 지난6년간 한해 여름도 거르지않고 광나루를 찾았다.키 1m78㎝, 몸무게 68㎏에 태권도(6단) 등으로 다듬어진 다부진몸은 이때가 되면 물개로 변한다.

그의 직책은 수상안전요원. 물에 빠진 수영객을 구조하고 수상안전지도를 한것이 그의 임무다. 그의 망원경에 익사위험에 놓인 수영객이 발견되면 그의 다부진몸은 순식간에 물찬제비가 된다.

6년동안 朴경사가 구조한 사람은 자그마치 6백90명. 올들어서만도 지난21일 하오5시께 이인종군(11·芳荑국교2년)을 비롯, 18명의 생명을 건져냈다.

「광나루 물개」는 그에겐 하늘이 내려준 천직인지도 모른다. 그의 고향은 한강변인 경기南楊州郡榛接面內里. 어린시절에도 한강은 즐거운 놀이터였지 위험한 대상은 아니었다. 이때부터 그의 몸속에는「물개」가 될「초능력」이 자라고 있었는지 모른다.

66년 경찰에 투신한 그는 간부후보생들의 수상훈련을 맡으면서 물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했다. 76년부터는 아예 수상요원으로서 물을 헤쳐왔다.

아마 6백90명이란 생명을 구조한 기록은 이방면에선 국내 최고기록일 것이란 동료들의 귀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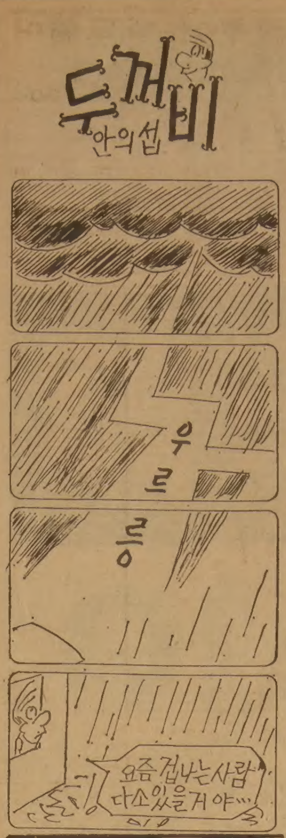
물을 헤치는 그의 생활이 여름이 간다고 한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름이 가면 이번엔 땅위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강력한 형사」란 직책이 그를 기다린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물개」생활만이 신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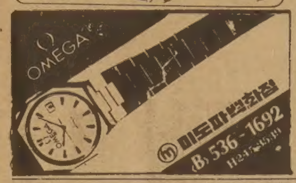
그는 남들의 안전한 피서를 위해서 물속에서 살지만 가족을 동반해 피서를 가본 일은 한번도 없다.

어쩌다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팔자소관이지요」라며 말끝을 흐린다.

「꿈만큼 정직한게 없어요. 만용을 부리는 사람에겐 항상 벌을 주니까요.」

【方政俊기자】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864-934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 월~목: 오후2시~새벽2시 / 금: 오전11시~새벽2시 / 토~일: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4 AM /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최성조
◎안내광고: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533-2361~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 / Yonge / King

G. N. Center
① 의류수선부…책임자 결정됐음.
② 가내봉제부…동업자 구함.
○ 다소의 재봉상식과 배달용 차 가지신분으로서 수납창고및 접수사무실 경비 책임 공동 부담할분에 한함
○ 한국노인 실비기숙자 약간명 모집 50세 이상의 한국 노인(남녀)분으로서 음식솜씨 또는 베비씨터 뜨개솜씨 자립 기능을 소지한 분에 한해 약간명 모집
★상세문의: 6~9 pm. ☎: 530-1046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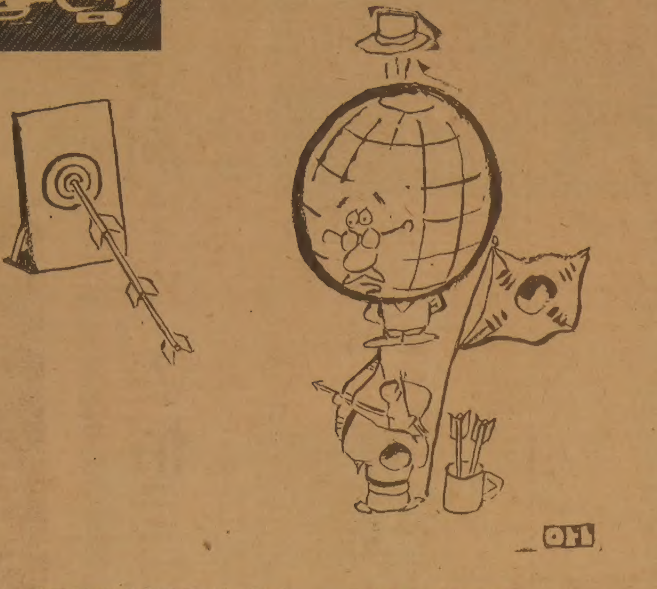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추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密輸꾼」이란 이름의 北傀 外交官들…



韓國弓道에 「한국」도 놀라고… 「세계」도 놀라고…

申東坡 파문

국가대표 여자농구팀 감독직 한때 사퇴

◇감독직 사퇴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申東坡감독。괴로운 심정을 얘기하고 있다。

국가대표 여자농구팀의 감독직 사퇴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申東坡감독이 자신의 심경을 털어놨다。『이토록 내 심정을 몰라준다면 농구계에서도 떠나고 싶습니다。』-지난 17일 82서울국제초청남자농구대회 마지막날 장충체육관에 모습을 나타낸 申東坡감독은 현재의 괴로운 심경을 얘기하면서 대한농구협회가 자신의 명예회복과 코칭스태프에서 원하는 2명의 선수를 교체해주지 않는한 절대로 대표팀을 맡을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표팀 감독직 사퇴의사는 선수보감독으로서의 당연하고도 순수한 요구들이 번번이 묵살당한데서 온 좌절감에서 내린 결단이었으며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게까지돼 괴롭습니다。』

그동안 시골에서 머리를 식혔다는 申감독은 『부상한 金福順과 全美愛를 馬恩京과 成貞兒로 교체해주지 않으면 대표팀 감독직을 사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며 이같은 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명예를 훼손시킨 농구협회가 공개 사과하고 2명의 선수를 교체해 줄 경우에 감독직을 다시 맡겠다고 말했다。

申감독은 지난5월 東京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ABC)가 끝난뒤 대표선수들의 과로를 염려, 光州종별선수권에는 뛰지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장의 약속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종별대회이후 유럽원정서 무리, 權明熙(1m85·태평양화학) 같은 선수는 무릎연골이 완전히 파열돼 어쩌면 선수생활이 곤란할지도 모르겠다고 버려놓았다。

2명의 선수 교체해 주지않아 불씨

"스카우트작전 일환" "인기전술 說" 소문도

협회 설득 申감독 14일만에 선수촌에

또한 문제의 成貞兒(1m83)를 포함, 최소한 2명은 새로 뽑아야겠다는 건의에 대해 협회측은『청소년대표후보는 대표팀에 줄수 없다』며 거부해 왔다는 것。

지난 7일의 이사회 전까지만 해도 鄭周鉉이사로 부터『成貞兒가 오전엔 청소년팀에서, 오후엔 대표팀에서 연습하면 어떠냐』는 얘기를 듣고 동의했는데 이틀날『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조령모개식의 협회행정을 비난했다。

申감독은 이같은 건의에 대해서는 대표팀의 趙勝延코치와 충분히 의논한 것으로 마치 자신이『東京ABC에서 中共에 간신히 이긴뒤 자신이 없어졌다』느니『公人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인기전술』이니『스카우트작전의 일환』이니 하는 오해를 받는 것이 더욱 섭섭하다고 말했다。

申감독은『개인적으로 지난 6년동안 사생활을 거의 도외시, 애들이 아빠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로 고달팠고 그래도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까지는 맡아야지하고 생각했다』며『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申감독은『감독직사퇴서 제출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朴贊淑등 현재와 같은 멤버를 가지고는 누군들 감독을 못하겠느냐』는 협회의 뒷말에『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혀 명분있고 뚜렷한 사퇴이유를 밝히지는 못했다。

한편 申감독의 주장에 대해 鄭周鉉이사는『후배이자 한국농구의 별인 그에게 오점을 남기는것 같아 안스럽다』고 말했고 李東燦회장은『내가 그렇게 찾았는데도 나타나지 않는것이 인간적으로 서운하다』며 모든 문제는 이사회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농구협회는 ▲현재의 申東坡·趙勝延코칭스태프 유지▲金福順을 馬恩京으로 교체하는 문제▲成貞兒의 10월이후 대표팀합류▲申감독이 18일하오까지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을경우 코칭스태프를 교체한다는 지난15일의 이사회결정을 재확인했으며 일부 이사진은 협회의 이같은 방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퇴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식 한국농구

82년 서울 국제남자초청농구대회가 남긴 教訓

◇82년도 서울초청국제농구대회 한국대 미국전。한국남자농구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지난 67년 제4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 이후 국제규모 대회로서는 서울에서 두번째로 열린 82년도 서울국제남자초청농구대회에서 한국은 참가 8개국중 4위에 처짐으로써 당초의 2위 목표를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이번 대회를 통해 드러난 한국농구의 실상은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몰랐던 농구, 즉 우물안 개구리식의 농구였다는 것이다。

다양한攻守패턴 개발로 신장열세 타개해야

지난8일부터 17일까지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82년도 서울국제남자초청농구대회는 한국농구의 현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었다。

말로만 들어왔던 농구의 본고장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장신의 뉴질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자유중국등 어느 한팀도 한국이 맞서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남자농구는 과연 무엇을 느낄수 있었을까。

미국팀의 헤드코치 조지·라벨링씨는『동·서의 신장차이는 조물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한국의 신장열세는 어쩔수 없다。그러나 이를 타개해 나갈수 있는 공수패턴을 연구해 나간다면 신장의 열세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존스컵국제대회와 이번 대회를 통해본 한국농구는 작전 없는 중거리 슛에만 의존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의 지적대로 한국남자농구는 장신팀을 맞아서 중거리 슛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다음 대책에 대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장의 열세는 어쩔수 없는 것이고 보면 단신 특유의 민첩성과 속공으로 오펜스 리바운드가 필요 없는 완벽한 득점기회를 만들수 있는 다양한 공격패턴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얘기이다。또 공격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수비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수비가 지나치게 허술했고 다양성과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그저 부딪쳐 보는 전술로는 절대 승리할수 없을 것이다。

미국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득점의 5분의3을 속공으로 올린 반면 한국은 5분의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즉 미국팀의 장신의 리바운드에서 이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적극수비에서 얻은 인터셉트와 상대방 공격미스를 속공으로 연결했던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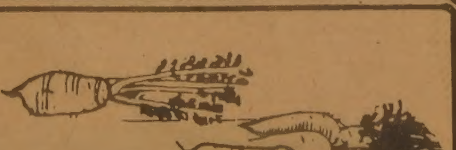
이밖에 그동안 한국농구는 장신선수발굴계획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서구인과는 달리 비정상적인 장신을 어떻게 키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연구해 오지 않아 장신선수는 있으나 이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이번 대회에 한국은 2m이상의 장신선수만도 河東基를 비롯, 韓基範등이 출전했으나 벤치를 지키는 후보선수로 만족해야만 했다。

장신발굴만을 부르짖을 일이 아니라 발굴된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하지 않는 한 한국농구의 장신화는 영원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희소식

도매업

○채소 ○과일 ○화초



야채·과일·화초·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민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필요가 없읍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품목은 직접 PICK UP하시거나, 주문할 수 있읍니다. (단, 시장가격의 변동이 있을때 품목에따라 5%의 차이가 있겠음을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해 드립니다. (배달은 오후1시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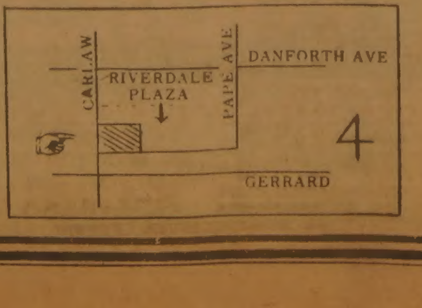
※시간 : 오전9시~오후10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품질·가격·신용보장〉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덕열



新학설 "나폴레옹은 女子였다"

프랑스의 군인이며 황제인 보나파르트·나폴레옹。그가 남자 아닌 『여자』였다는 쇼킹 학설이 발표되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영국의 「성의학 저널」에 이 믿지못할 발표를 게재한 사람은 미국의 오거스터대학의 클린트·브라트 의학박사。그것이 정말일까。

美오거스터大 브라트敎授
英의학전문誌에 연구발표

◇나폴레옹의 초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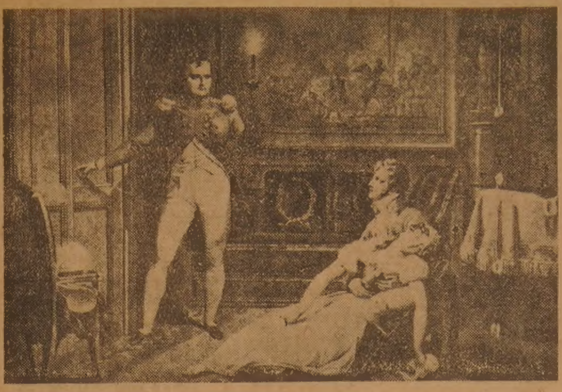
◇나폴레옹의 데드 마스크。

●증거①＝매끄럽고 하얀 살결에 體毛가 하나도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문자는 없다』고한 나폴레옹은 영국군에 의해 대서양의 고도 세인트·헬레나에서 숨졌다。

클린트·브라트 박사는 우연히 그 검시보고서를 입수한뒤 다음과같이 쓰고있다。

『나폴레옹은 여성특유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전신이 두꺼운 피하지방으로 덮여있고 살결은 희고 부드럽다。한오라기의 체모(體毛)도 없다。살찐 중년여성처럼 크고 펑퍼짐한 히프。좁은 어깨、극단적으로 작은 손발、거기다가 날씬한 다리。』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이혼。조세핀과 나폴레옹이 마지막 저녁을 함께한 직후로 조세핀을 안고 있는 사람은 보세공작。

이어서 검시보고서를 쓴 의사는 떨리는 글씨로 놀라운 사실을 알리고 있다。

『가슴—。두개의 작은 수프 컵을 엎어 놓은것 같은 풍부하고 아름다운 유방…』

정말 나폴레옹이 여성의 유방을 가졌단 말인가。

●증거②＝여성과 거의 같은 性徵

당시 나폴레옹의 시체해부에 입회했던 영국의사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었다고 클린트·브라트박사가 공개했다。

『그것을 본 순간 나는 메스를 떨어뜨렸다。상상할수없는 모습이 아닌가。위대한 영웅 나폴레옹의 생식기가 너무나 작아、새끼 손가락만 했다。고환도 작은 살구만 했다。그뿐인가。하복부를 절개하자 치골(恥骨)이 여민것과 같이 발달해 있었다。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이 치골은 분명히 여자의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의학적 증거로 부터 호르몬 내분비과의 전문의 이기도한 클린트·브라트 박사는

『나폴레옹은 당시는 잘 알려지지 않은「조린가·에리슨·콤플렉스」라는 병에 걸려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병은 성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데 그 병의 특징은 남성을 여성화시키는 것이다。가슴이 커지고 생식기가 위축되는등…』이라고 클린트·브라트박사는 말한다。

또한 東京의원 원장인 增田豐박사도

입수된 檢屍報告서 "여자부분" 발견

살찐 中年女性처럼 크고 펑퍼짐한 히프와 유방

생식기가 너무나 작고 고환도 작은 살구만했다

하루 하루 女性化돼가는 病에 걸려…

『나폴레옹은 하루 3시간밖에 자지 않은것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장시간 계속되면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따라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고 그 결과 생식기가 작아지고 여성화되는 경향을 보일수도 있다』고 말한다。

●증거③＝남성능력의 상실

매일 매일 여성화 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그는 얼마나 저주하며 살아왔을까。

그 병은 남성으로서의 욕망을 빼앗아갔다。

그의 부인이었던 조세핀의 동침요구를 자주 거절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있다。

생전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그를 진찰한 의사들은 성능력의 쇠퇴를 보고하고있다。

『나폴레옹은 정력가로 널리 알려져있다。그러나 그는 여성화 되어가는것을 세상에 숨기고 살아야하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고 클린트·브라트 박사는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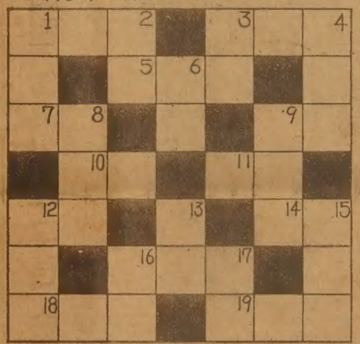
『그는 하루 하루 육체가 여자로 변해갔을 뿐 아니라 성격마저 여성화되어 무기력해지고 만년에는 결단력도 없어졌다』고 그는 덧붙인다。

어쨌든 나폴레옹이 신체적으로 여성이었다고 아무도 단언할 사람은 아직은 없다。

그리나 그가 여성을 닮은 남자였다는 단언도 아무도 내릴수는 없는 것이다。

【外誌에서】

<제16회 퀴즈>



■가로
1. 올림픽 유치에도 한몫 하더니만 대한체육회장까지
3. 술을 권하는 노래
5. 불을 붙여 쏘는 구식의 총
7. 살살 부는 바람
9. 안주인
10. 서울 마장동에서 土·日요일에만 벌어지는 것
11. 무덤
12. 배나무 꽃
14. 大院君이 즐겨 그린 그림의 소재
16. 혈기가 많아 정서의 발동이 빠른 기질
18. 껍질이 얇고 물이 많은 복숭아의 일종
19. 사업에 밑천을 대는 사람

■세로
1、정부에서 방출하는 쌀
2、통금이 없어진후 심야에도 보러 간다는데
3、짧고 작은 호신용 총
4、집안 청소와 밥 짓기… 요즘엔 시간제도
6、재판에서 이김
8、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
9、인구는 늘고 보급은 못따라 더욱 구하기 어려운 의·식·주중의 하나
12、첫 場外홈런을 친 프로야구 선수
13、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피를 제공
15、학문 기술등 첫걸음 단계
16、茶를 마시는 법도
17、남을 시기함

〈16회 정답은 13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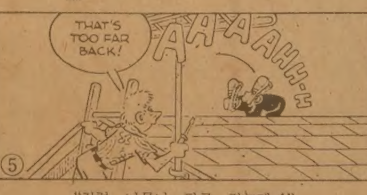
本社특약
블론디
딘·영作

"안녕하십니까, 저는 실베스터·히키입니다… 길건너서 온 당신의 새로운 이웃이지요"

"죄송하지만 쇠망치, 렌치, 나사돌리는 드라이버, 사다리를 좀 빌 수 있을까요?"
"그러고 말구요"

"저어, 실례지만 TV 안테나 세우는걸 좀 도와 주시겠어요?"
"좋습니다…기꺼이 도와 드리지요"

"조금만 더 뒤에 서서 이게 똑바른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저런 너무나 뒤로 갔는데!"
—아아악—

"괜찮습니까?"
"예…괜찮아요。약간 어지러울 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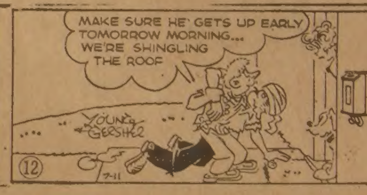
"저 느슨한 층계를 못질하는 동안 좀 잡아 주시겠읍니까?"

—팡—
"아이구! 엄지손가락이야!"

"저, 이왕 목욕탕에 왔으니 세면대 고치는걸 도와 주시겠소?"

"이쪽으로 좀더 힘을 쓸수 있게해 주시오"

—꽈당—



"이 양반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확인해 줘요… 지붕을 널빤지로 이을거예요"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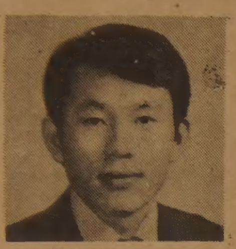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지사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英語연구원장>



○민병철 씨

NOT ON YOUR LIFE!

Superman이라는 영화를 보면 새까맣게 높은 skyscraper(고층건물) 꼭대기에 Superman의 girlfriend(애인)가 추락된 helicopter(헬리콥터)를 탄채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Superman이 날아가서 애인을 구해내고 마침내 땅으로 떨어지는 헬기까지 무사히 구출해내는데, 이것을 본 경관이 나중에 그자리에 없었던 동료경관에게 이사실을 얘기해 주자 Not on your life!라고 대꾸하는 부분이 나온다.

Not on your life.란 직역하여 목숨을 걸고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몹시 강조하여 부정할때 쓰이는 말로서 absolutely not (절대로 아니다) 와 같은 의미다. 그 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경관이 한말은 결국 「절대로 그럴리가 없다」라고 강력히 부정하는 말이다.

You want me to fight with Mohammed Ali? Not on your life! (날더러 모하메드·알리와 싸워보라구요? 죽어도 못합니다)

You want me to pay you $500 for that pile of junk? Not on your life! (저 고물차를 날더러 500불씩이나 내라구요? 어림 없는 소립니다!) 이상과 같이 사용한다.

× ×

A : You had your car fixed last week, didn't you?
B : Yes, but I'm still having trouble starting it.
A : Why don't you buy my car? I'm buying a new one and I have to get rid of it.
B : How much are you asking?
A : $500.00.
B : You want me to pay you $500.00 for that pile of junk? Not on your life!

× ×

A : I'm very excited about graduation!
B : I should think so.
A : And I'm going to the graduation dance with Jim.
B : Jim? I thought you were going with Bill.
A : Not on your life! Bill and I are through!
B : Sometimes I think you're very fickle.

A : 지난주일에 차를 고치지 않았던가요?
B : 고쳤지만 시동이 아직도 잘 안 걸리는 군요.
A : 내 차를 사지 그러세요. 새 차를 구입하게 되어 지금 가지고있는 차를 처분해야 된답니다.
B : 얼마를 원하세요?
A : 500불만 내십시오.
B : 저 고물차를 500불씩이나 내란 말인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 ×

A : 나는 지금 졸업으로 아주 들떠 있어.
B : 그러리라고 생각해.
A : 그리고, 짐과 함께 졸업무도회에 갈거야.
B : 짐이라니? 나는 네가 빌과함께 가는것으로 생각했는데.
A : 절대로! 빌과 나와는 이미 끝이났어.
B : 이따금 너는 꽤 변덕인것 같구나.

× ×

superman : 수퍼맨 (수퍼맨이라고 발음하지 말것) 초인적인능력을 가진사람. wouldn't start :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경우 조동사 would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get rid of : 처분하다. pile of junk : 고물이 쌓여있는 상태, 고물단지.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海外걸작漫畵

『性교육선생은 사직할래요!』
"I'm tendering my resignation as sex teacher!"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5

지난줄거리

충찬은 무공 스님 밑에서 목숨을 건 훈련을 받는다. 후끈 달아오른 바위 위에서 기절하도록 참선하거나 얼음처럼 차가운 계곡물에 잠기어 기절하거나 삼천배를 하여 기절하는 최악의 고통을 감수한 끝에 무공전법의 진수를 겨우 터득했다. 몇달만에 하산하는 길에 주간지를 읽다가 정아영이란 탤런트가 쑥대밭이 된 기사를 읽고 유기하를 끌어낼수 있는 묘책을 떠올렸다.

정아영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보습비에게 연락했지만 쉽지 않았다. 주간지 기사대로라면 정아영이란 탤런트만 죽일 여자였다. 그녀가 그 지경이 되어버린 뒤에 흑막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았다.

통신사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좀 봐줄 일 생겼읍니다.』

『징그럽게 왜 이래? 네 입만 벙긋하면 겁부터 난다.』

『이번엔 재미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로 갈테니 꼼짝 말아요.』

『쐬주라두 술축에 들면 언제고 와라.』

『쐬주가 술 아뉴?』

『우리같이 거렁뱅이 중에 상거렁뱅이들 먹는 것도 술축에 드는 거냐?』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실연여라두 했수?』

『넌 귓구멍두 눈깔두 없냐?』

『형, 점점 왜 이래요?』

『넌 위대한 놈이구나.』

『형보다야 펄 위대하니까요.』

『손큰 여자에 손큰 사내만 사는 세상에 이저 우리같은 거렁뱅이는 거렁뱅이 비슷하기라도 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때서야 그 선배가 은행융자를 믿고 강남땅 외진 곳에 손수건보다 조금 큰 땅을 사서 집 지으려다가 돈줄이 막혀 평생 소원인 집 소유하는 일을 포기한걸 알았다.

형은 술만 한잔 걸치면 처절한 통곡의 소리처럼 이런 노래를 불러대곤 했었다.

내 평생 소원은 방 한간
내 평생 소원은 방 한간
흙벽돌이라도 좋아라
뒤틀린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우리 식구들 깡총깡총
내 평생 소원은 방 한간
우리 식구 바람 피할 곳.

형은 셋방살이 10년이 되었어도 제 집 한간 없는 기자 나부랑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융자해 주기로 한 은행에선 돈줄을 찾는 굵은 손들 때문에 모가지를 빳빳하게 세우더라는 것이었다.

국민들한테 저축하는게 일등국민인 것처럼, 마치 저축하지 않으면 야만인처럼 얼러대고 강제로 통장 갖게 으르렁거리던 은행들이 막상 돈 쓸 일이 있어 은행 찾아가면, 넥타이 맨 빤들빤들한·녀석들한테 빌어쓰는 액수의 1할 가까이 뜯어먹히고도 갖은 아양 다 떨어야 겨우 돈 몇푼 빌어 쓸수 있었다.

그렇게라도 빌어 쓰는 사람은 아이큐와 아양 떠는 지수가 최저 140은 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내가 그 난장판에 끼어들어 돋지 않고 보지 않은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풍뎅이 모가지 비틀어 놓듯 내가 악을 썼을지도 모른다.

신문을 뒤적거려 자세히 읽기가 싫었다. 어째서 정당한 국민들이 신문 읽기를 꺼려하고 당황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신문에 너무 아름다운 기사가 넘쳐 흘러서 사람들이 충격적인 기사를 거짓말로라도 실어 달라고 항의하는 세상에 올 수는 없을까? 웬만한 충격적인 기사엔 외눈 하나 깜짝 않는 이 강심장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

하나님,

사람값 좀 올려주세요. 사람 하나 만들기도 어렵고 사람 하나 키우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값없이 사라지게 하고 고통을 받게해서 무슨 재미를 얻으시려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속셈 좀 압시다.

억울하게 고문당해 만신창이가 된 고씨 가문의 여인은 진짜 병들어도 신문이 떠들어대니까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내주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친절하시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경찰관 아저씨가 고문을 했을리도 없고, 법공부 제대로 하신 검사양반들이 옭아넣는 걸 취미로 삼지 않으셨을거고, 법앞에 평등하다는 걸 아는 판사 선생들이 이몽룡처럼 제 애인 구하는 식의 재판을 할리없으니 국민들은 신문보도밖에 더 믿겠읍니까.

하나님,

내가 하산하여 신문을 대충대충 읽다가 놀랄게 너무 많아서 호외다운 호외를 보며 사는 행복한 국민이란 생각도 했읍니다. 옛날엔 호외다운 호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었잖습니까.

언젠가 제 쓸만한 당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대가리 싸움하다가 느닷없이 각목 들고 깡패 몸 푸는 시합한 걸 하나님도 목격했을 겁니다.

그때 만약 보통 시민들이 그런 싸움질했다면 대번에 옭아넣어 폭행죄로 고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리는 그런 집단 폭행범죄자들을 빨리 꺼내주지 않는다고 떠들었읍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런 일이 법치국가라는 이 땅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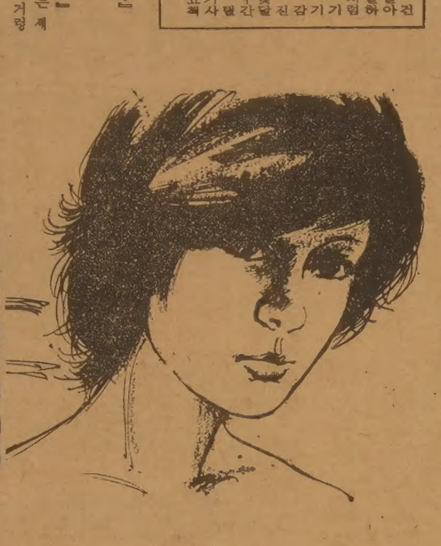
하나님,

입이 달렸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말짱 끼고 구경하면서 이같은 작태를 낄낄거리며 재미있어 하시는건 아니시겠죠?

국민우롱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읍니다. 그러다가 표알 찍어주는 국민들을 잡아다 곤장이라도 치면 어쩌겠읍니까?

하나님, 내가 신문 본 게 죄자 됩니까?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변자라고 뻐드는 국회의원이란 사내가 국회에서



어떤 여자가 주무른 손얘기가 신문볼 재미를 주었다

주먹질을 했는데 그 사내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이 있는데도 폭행죄로 감옥엘 가지 않았읍니다.

야, 이 개떡같은 사내야. 여기가 깡패공화국이냐? 썅!

하나님이 이렇게 욕좀 하시고 귀싸대기를 헌집 벽 털어내듯 갈겨주세요. 수채구멍에 쑤셔박아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위임할 수 있읍니다.

하나님, 제발 이러지 좀 마십쇼. 사람들 환장하겠읍니다.

통신사 근처 맥주집은 한산했다. 형은 구석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통신사 기자노릇하는 게 무슨 죽을 죄 졌는지 어디 가도 구석만 찾는다. 쥐구멍이 어디 있나 찾다보니 사람 꼴이 그렇게 되나보드라.』

『형, 실업자한테 겁 주는거요?』

『네가 어째 실업자냐? 실업가시겠지.』

『나같은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형같은 회사 들어갈 실력도 없는 놈입니다. 긍지 좀 가져요.』

『염병할, 긍지 가지려니까 똥이 마렵더라.』

언제나 걸쭉하고 바른 말 잘하는 형이었다.

『대체 웬일이냐?』

형은 맥주 한병을 다 비운 뒤에 물었다.

『정아영 사건 때문에 왔어요.』

『너도 기둥서방이냐?』

『이거 왜 이래요. 나같이 선량한 놈이 쳐다나 볼 수 있읍니까?』

『말만 잘하면 공짜래드라. 니미랄 거, 나같은 놈은 사내 축에도 못 꼈다. 잘난 놈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이렇게 사느니 일찍 죽는 게 인류를 위해 현명하다는 건 알지만서두….』

형은 또 반병쯤을 단숨에 들이켰다. 목젖이 커서 그런지 술 먹는 솜씨로야 일급기자였다.

『뭐 쑤시려고 그러냐?』

『정아영일을 좀 알아요.』

『이크, 깜짝이다.』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걸 보니까 뭔가 뒤가 쿠려요. 정아영이 주간지 사진부에 있는 자식한테 된통 걸려서 피 빨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이 안 살아 주면 과거를 폭로해서 생매장시킨다고 한 모양예요. 그쪽 소식이야 형이 빠삭하잖아요.』

『그런 사람같지도 않은 자식 얘길 뭐러 하냐? 내 주둥아리만 더럽지.』

『형, 내겐 그럴 사정이 있어요.』

『무슨 얼어죽을 놈의 사정이냐? 그게 사전이냐?』

『형, 내가 언제 이렇게 간절합디까?』

『그건 그렇다만.』

나는 사정 얘기를 다할 수 없었지만 형이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될만큼 몰고 늘어졌다.

『네가 보긴 잘 봤다. 그러나 내가 기자 나부랭이래서도 아니고 주간국에 근무했대서도 아니고 친구들이 기자래서도 아닌 할 얘기는 하고 짚고 넘어갈건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다.』

『해봐요.』

형과 나는 제법 마셨는데도 취할 기색이 아니었다.

『어느 집단이든 소수라는게 있다. 주간지 기자들을 탈렌트나 넘실거리고 돈이나 훑쳐내는 걸로 생각하는, 너같은 좀상들을 위해 한마디 해야겠다.』

형은 그 대목에 가서는 조금씩 취한 척을 했다. 아마 낯이 간지러웠던 모양이었다.

『주간지 기자들 그런 식으로 전락시킨 치들이 물론 있었다. 또 그런 주간지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틀린다면 칼을 물고 죽을테니 어떤 주간지든 편집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좀 네 눈깔로 한번 봐라. 정아영을 그 지경으로 쑤셔박은 새끼는 선천적 찰거머리데 어쩌다 아직까지 주간지 사진부 기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주간지 기자가 덤테기를 쓰고 있는 거다. 탈렌트 따먹는 프로듀서라는 새끼들도, 감독이란 치들도 모두 극소수라는 걸 대중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물론 그건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괜히 핏대내고 그래요?』

『너도 별 수 없는 놈이라구. 말로야 알지. 그러나 속으로 너도 별 수 없이 그럴 거라고 믿고 있잖지. 부자라면 무조건 사기꾼, 교수라면 무조건 근엄한 자, 주간지 기자라면 무조건 탈렌트 따먹는 치

주간지가 어쩌고해도 기자들 피 쏟아가며 만든 거다

한, 소설 쓰는 사람은 무조건 잡놈, 호텔서 나오는 년은 모두 불결, 목청 큰 놈은 모두 애국자… 뭐 그렇게 취급하는 세상이란 말이다.』

『차암.』

나는 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기자들이 놀고 먹는 줄 알겠지. 나같이 벌건 대낮에 술이나 처먹고 빌빌거리며 돌아다니니까 말이다. 임마, 신문 만드는게 장난 아니란 말야. 주간지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기자들 피 쏟아가며 만든 거다. 그런 새끼 하나 때문에 덤테기 쓰고도 공공 앓기만하고… 어느 미친 년이 주간지 기자에게 옷을 훌랑훌랑 벗어주대?』

형은 흥분한 것 같았다.

『형, 나도 알아요. 지금 얘긴 정아영을 떡친 주간지의 사진부 기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이 크억거리며 웃었다.

『임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주간지 기자 가운데 아직도 그런 새끼 한 둘은 더 있을 거다. 그러나 나머지 기자들은 쥐꼬리 만한 월급에 매달려 그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니 사명도 생겨고 공기의 역할도 생기고 기자노릇하려면 못볼 것도 봐야하고 하더까 악다구니 쓰고 있는 거다.』

『누가 뭐래요?』

『임마, 내가 쥐뿔도 모르는 게 주간지 기자 대변인도 아닌 것이 떠든다고 가소롭게 듣지 마라. 몇놈 때문에 피해 입은 주간지 기자들, 어디 가서 어떻게 무엇을 보상을 받겠느냐 이거다!』

형은 점점 흥분해 갔다.

『그래서 그 자식 모가지를 비틀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자식은 모가지를 비틀어두 좋구 산소땜질로 똥개와 붙여놔도 좋다.』

형은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대꾸없이 귀담아 들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정아영은 가난한 집 애고 뛰어난 미모와 괜찮은 몸매라는 전, 출세하고 싶었겠지. 그건 나라도 마찬가질테니까. 그런데 그판엔 돈을 밝히거나 몸을 밝히는 자식들이 더러 있다. 이름 대라면 좌악 깔아놓을 수 있다. 찰거머리들이지. 정아영도 그 찰거머리떼한테 피를 빨린 거다. 피 빨린 애들 많지만 정아영이가 덤테기 쓴 건 네가 말하는 주간지의 사진부 새끼가 확대재생산에 감정적 복수에 구린내 나는 장난에 희생타가 된셈이다.』

『내 짐작이 맞아떨어진 거죠.』

나는 으쓱한 기분으로 말했다.

『웃기지마라. 서정 사람들도 아는 거다. 그 정도 짐작이야 빤한 재 아니냐.』

『그 녀석 지금도 안쫓겨나고 잘 삽니까? 정아영을 챙겨 봉으려고 이혼까지 했다던데요.』

『본래 그런 자식이 더 잘먹고 더 잘 살고 더 재미있게 사는 법이다. 우리 같은 쪼다들이야 쐬주가 약이구 쐬주가 나이지만.』

『과정 얘기 좀 해줘요.』

형은 흥분해서 정아영을 몰락시키려는 사내의 치졸함을 정신없이 공격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겁의 극치였다.

『정아영이 송사리일 때 그 새끼가 대충 피드겼겠지. 세상에 뭐든 붙잡아야 할 때고 가진 건 없고, 몸으로 때우려고 했겠지.』

『차라리 정아영을 상 줘야잖아요? 마음씨가 얼마나 좋아요. 고루고루 사랑해줬으니….』

『말은 된다. 그런데 이 자식이 마음이 들뜬거야. 정아영이 유명해졌거든. 정아영의 과거야 재놈이 다 아는 거지만 유명한 탈렌트하고 사는걸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했는지 이혼해 버린 거다. 하긴 시골 가서 자랑할만 하겠지. 유명한 탈렌트 남편으로서 폼재가 좋았겠지. 정아영은 사랑하거나 좋아한게 아니라 몸으로 그동안 표지사진 찍어준거나 액자에다 사진 넣어 갔다준 고마움을 때운 셈인데 이 찰거머리는 아예 제 차지로 생각했겠지.』

『떡줄 놈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치국부터 마셨군요.』

『너 말루 하나는 기가 막히다.』

형은 정아영이 찰거머리에게 몰리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정아영은 거절했지만 그 새끼는 계속 물고 늘어진 거다. 제말 안 들으면 친한 기자를 동원해서 과거를 폭로시킬거고, 계속 물어뜯겠다고. 그 새끼는 아주 구체적인 정아영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거지.』

영은 무서운 결심을 했다. 그 고통을 더 끌고 나갈수가 없었다. 애원도 했고 사정도 했지만 놓은 여우는 놓아주지 않았다. 20대 초반의 정아영의 살점에 붙은 찰거머리는 결국 치사한 복수극을 벌였다.

『복수극이라면 구체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할 얘기 아닐까요? 정아영이 피해자 아닐까요?』

『듣고 보니 너도 옳은 소리 할 때가 다 있구나. 그 자식은 복수극이 아니라 파괴극을 꾸민 거다. 굴러먹은 뼈다귀가 주간지여서가 아니라 애초 그녀석 뼈다귀가 그렇게 생긴 새끼였다. 소문이 짜한 놈이었으니까. 정아영이 떠나자 칼을 갈았지. 그리고 특종인양 폭어낸 거야. 제 얘기는 쏙 빼고 프로듀서와 감독만 엮어넣었지. 처음엔 옛날 애인 얘기로 기사 만들기 쉽게 불을 댕기고 뒤엔 정아영을 극렬하게 파괴하려고 했지. 그러나 그게 어디 불알 달린 사내새끼냐? 차라리 탱자를 달고 다닐 놈이지. 제 말마따나 사랑했다면 따귀나 한대 때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저주나 할 일이지.』

형은 점점 더 흥분해서 사람됨됨이가 애초 글러먹은 치가 주간지의 사진부에 들어온 것부터가 주간지기자들을 덤터기 씌운 죄과라고 얼러댔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새끼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정아영이 망할 것 같나? 당분간 어렵겠지. 그러나 그만한 의지가 있는 여자라면 쉽게 된다. 찰거머리떼한테 피 빨리지 않겠다는 의지, 연기인들이 곧잘 빠지는 그 환상의 늪에서 상처투성이로 기어나온 정신이면 쉽게 죽진 않을 거다.』

『형, 내가 그 자식 턱주가리를 좀 만져줘도 돼요?』

『임마, 그런 건 똥개도 안물어갈 놈야. 네가 뭐하러 덤벼.』

『그렇긴 하지만….』

나는 말끝을 흐렸다.

『혼내려면 그 새끼하고 연결된 찰거머리떼를 몽땅 끌어다놓고 치도곤이를 낸다면 몰라도.』

『어떤 떼들인가요?』

『뻔하잖아. 찰거머리떼가 굵직한 게 몇개 있으니까. 여의도 황마담 밑닦아 주는 모양이드라.』

『구미가 당기는데요.』

『임마, 황마담 문어발이란 거나 알고 덤벼. 잘못하면 너두 뼈 삭아서 돌아올라.』

나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황마담이 어떤 여자인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정말 웬만한 사람이 걸리면 뼈가 삭아버릴것 같은 여자였다.

악의 오르가니슴.

그 치사한 사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형은 퇴근시간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말했다. 나는 앞 뒤 사정을 상세하게 머릿속에 넣었다. 어금니를 앙다물었다.

애들은 신바람이 났는지 치사한 사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금방 알아왔다. 나는 어슬렁거리며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제법 평수 넓은 아파트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섰다.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힘있게 눌렀다.

『누구십니까?』

굵직한 사내 목소리였다.

『정아영씨 심부름 온 사람입니다.』

『누구요?』

『정아영씨가 긴히 드릴 말씀 있다고 절 보냈읍니다.』

『허허, 잠깐 기다리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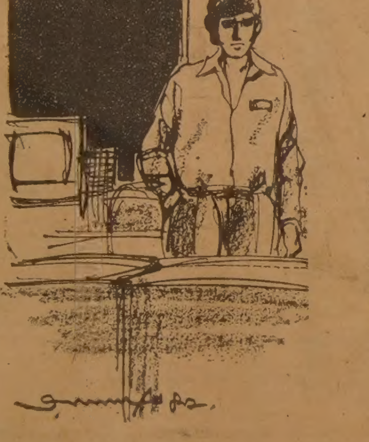
대번에 말투가 건방져졌다. 사내는 한참 동안 기다리게 한 뒤에 문을 열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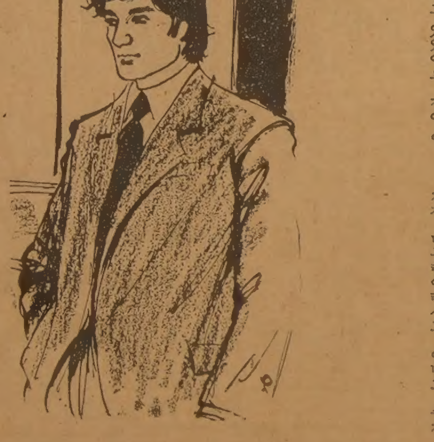
나는 대번에 방안 분위기와 냄새로 사내 혼자가 아니라는 직감을 얻었다. 여자가 어느 방엔가 숨은 것 같았다.

『앉으슈. 뭣 땜에 가랍디까?』

사내가 담배를 꼬나물고 비스듬히 앉았다. 나는 웃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건記者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전처 소생의 어린자녀 둘을 학대끝에 살해한「살인 계모」2명이 쇠고랑을 찼고, 같은 직장의 여경리사원과 놀아난 20대 남편이 부인을 살해, 암장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몸이 오싹해지는 납량(納凉) 실화다。이번주「기자수첩」은 취객을 가장하고 절도죄를 뒤집어 씌우는 신종 공갈숫법과 13살짜리 국교생의 자살사건, 내기 장기에서 훈수시비끝에 과실치사범이 되고만 빗나간 장기판등 어두운 단면을 또 토해낼수밖에 없었다。

처녀交際 방해된다고 결혼 5개월만에 아내殺害

■女경리사원과 놀아나

▲절도혐의로 구속중인 피의자가 아내를 살해, 암매장한 새로운 사실이 경찰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釜山남부경찰서는 지난17일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부인을 살해한 金萬福씨(24·부산시 서구 감천1동 29의9)를 살인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金씨의 자백에따라 이날 하오6시께 慶南密陽郡 山內面 南明里 속칭 얼음골 뒷산에서 암매장 된 金씨의 부인 徐원자씨(23)의 시체를 찾아냈다。

이에 앞서 金씨는 지난15일 동거여인과의 생활비를 마련키 위해 은행앞에서 3백여만원을 날치기해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혀 절도혐의로 구속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5월분 봉급날인 지난 5월25일『울산에 계시는 할머니의 신경통약을 함께 사러가자』며 이날 하오8시께 부인 徐씨를 얼음골 뒷산까지 유인, 산 중턱에서 갑자기 목을 졸라 실신시킨뒤 40m 떨어진 숲속으로 안고 가 다시 스타킹으로 목을 졸라 살해, 소나무 밑 땅이 패곳에 묻었다고 한다。

前妻소생 자녀 학대 살인한 두繼母

장기 훈수 시비끝에 살인

경찰에서 범인 金씨는 지난해 12월 결혼한 아내와 성격이 맞지않아 부부싸움이 잦았고 지난2월 사귄 朴모양(22·K수산경리사원)과 교제하는데 방해가돼 평소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金은 범행을 감추려고 지난6월1일『아내가 무단가출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자신이 다니는 회사 사장실에서 32만원을 훔쳐 애인 朴양과 서울등을 돌아다니며 도피행각을 벌였고 6월17일부터는 浦項市海島洞 월셋방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지난15일상오7시께 서울鍾路區 鍾路1동102의6 명보당금은방(주인 李在源·35)금고속에 보관중이던 금반지·금목걸이등 금20냥과 보석반지 50여점등 1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없어진것을 주인 李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씨는 전날밤 10시10분께 철제셔터를 내린 뒤 2백여m 떨어져있는 집에서 자고 이날 아침 점포로 나가보니 자물쇠로 채워둔 철제셔터가 열려 있었고 귀금속을 넣어둔 높이 80㎝정도의 철제금고 뒷부분에 예리한 도구로 뚫은듯한 직경 10㎝의 구멍이 나 있었으며 금고의 앞문도 열려 있었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핸드백 치기

▲지난19일 밤9시20분께 서울성북구안암동4가19의5 앞길에서 90㏄짜리 오토바이를 탄 2명이 현금 32만원이 든 韓淑子노인(62·안암동3가136의1)의 핸드백을 채 달아났다。

韓노인에 따르면 이날 안암동로터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하차, 귀가하기위해 인도를 따라 신설동쪽으로 1백m쯤 걸어갔을 무렵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옆을 스치면서 뒷자리에 탄 범인이 핸드백을 낚아채 신설동쪽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경찰은 상습날치기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13살짜리 국교생이 자살

新種공갈 수법…도둑 누명 씌어

▲서울구로경찰서는 14일 강성환씨(38·전과2범·서울도봉구 미아2동833의16)를 공갈및 뇌물공여의 사표시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洪모씨(40)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10일밤11시반께 구로구구로전철역 플랫폼에서 취객을 가장, 누워있다가 이역의 부역장 李옥우씨(38)가 흔들어 깨우자『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洪씨와 합세, 李씨를 인근 구로파출소로 끌고가 현금30만원과 롤렉스시계를 훔쳐가는 것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신고。

이뒤 강씨는 부역장 李씨에게 상급부서에 알려 파면시키겠다고 위협, 변상금조로 85만원을 갈취했고, 파출소 담당경찰관에게는 사례비조로 12만원을 전네주려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역장 李씨가 강씨를 흔들어 깨울때 강씨의 바지주머니에서 1만원권등 6만5천원의 현금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강씨의 진술에따라 현금을 감식했더니 돈 가장자리에 모두 불펜으로「금성」또는「백성」이라는 표시를 한것을 발견, 이들이 계획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밝혀내고 강씨를 구속한것이다。

■2명의 살인 繼母

▲서울태릉경찰서는20일서울동대문구면목동346우성연립주택3호 崔順愛여인(30)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崔여인은 지난 19일상오10시께 자기집 안방에서 전처소생의 딸 李英淑양(13·면목여중2년)을 TV코드로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것。

李모씨(41·운전기사)의 후처인 崔여인은 전날 남편 李씨와 사소한 문제로 심하게 다퉜는데 이날 남편이 일을 나간사이 갑자기『너죽고 나죽자』며 李양을 목졸라 죽인뒤 자신도 TV코드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서울송암경찰서는 서울도봉구미아4동4의92 表씨(20·주부)를 미성년자 학대및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表여인은 지난10일 하오5시께 남편의 전처소생인 아들 金鏞군(3)이 복숭아를 훔쳐먹었다고 플래스틱 빗자루로 마구 때려 실신하자 병원으로 옮기던중 9시반께 숨지게 했다는것。

경찰은 金군의 아버지 金씨(운전기사)로부터 평소 表여인이 金군을 심하게 때리고 학대했다며 아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따라 시체를 부검한 결과 척추골절·후두부골절·장파열등으로 숨졌음을 밝혀냈던것。

表여인은 金군을 때려 숨지게한뒤 설익은 복숭아와 구정물을 마시게해 식중독으로 숨진것처럼 경찰에 신고했었다。

表여인은 지난80년 7월 金씨의 전처인 高모씨가 金군을 낳고 숨진뒤 술집접대부로 있다가 후처로 들어왔는데 현재 생후3개월된 아기를 두고있다。

<삽화·權大雄>

한국일보 사건記者 수첩

신축 教會 完工후 "不實공사다" 대금 안줘

中2生이 "선배 욕한다"에 中1 후배가 깨진병 휘둘러 失明케

■땅 안팔리자 음독자살

▲지난15일상오9시께 서울九老區禿山2洞산209의35 金정만씨(47·노동)집 전년방에서 金씨의 부인 姜임순씨(39)가 극약을 먹고 신음중인것을 金씨가 발견, 병원에 옮겼으나 이날 하오 숨졌다。

金씨에 따르면 姜씨는 지난80년 남편 몰래 6백만원의 빚을 얻어 공업단지가 들어선다는 忠南牙山郡 아산만에 임야6천7백평을 5백20만원을 주고 사들였는데 대규모공업단지계획이 취소되면서 땅시세가 떨어진데다 되팔리지도 않게되자 고민해왔다고 한다。

▲서울청량리경찰서는 16일 서울동대문구장안동38의8 장안제일감리교회 목사 李慶福씨(45)와 李씨의 형 李勝俊씨(63·전화청강 대표)등 형제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 李씨형제는 지난해 4월23일부터 서울동대문구장안동 장안평아파트단지 부근에 지하1층 지상6층의 총건평1천40평의 큰 교회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를 맡은 柳영순씨(38·강남구대치동316)정의영씨(44·도봉구수유동56의44)김정욱씨(44·동대문구답십리동266의1)崔光孝씨(46·인천시남구옥련동405의36)등 건축업자 4명에게『부실공사를 했으니 대금을 줄수없다』고 주장, 공사대금 2억3천여만원을 주지않은 혐의다。

목사 李씨는 교회건립추진위원장인 형 승준씨와 함께 건축업자 柳씨에게는 공사비 9천만원에 지하층 공사를, 또 金씨에게는 지상2층까지의 공사를 1억2천만원에 각각 맡긴후 柳씨와 金씨가 2층까지 공사를 완공했는데도 부실공사라고 주장,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2억3천여만원짜리 어음을 고의적으로 부도냈다는것。

李씨형제는 교회내장공사를 맡긴 다른 건축업자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공사대금을 주지않고, 건축업자4명을 상대로 부실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법북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까지했다는 것이다。

■도심지 주택가 박쥐떼

▲도심지 주택가에 밤이면 박쥐가 떼를 지어 날아들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지난 14일밤9시반께 서울영등포구신길3동325의33 宋鳳吾씨(55·상업)집 전년방에 세들어사는 尹明祚씨(61)방에 박쥐1마리가 날아든것을 TV를 보고있던 尹씨가 파리채로 잡았다。

尹씨가 잡은 박쥐는 몸통길이가 19㎝나 되었는데 18일밤10시께는 같은 크기의 박쥐1마리가 또 날아들어 尹씨의 막내 아들 범수군(17)의 얼굴에 붙어있는 것을 잡았다는것。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밤만되면 이 동네 일부 가정집처마밑에 박쥐가 5~6마리씩 떼를 지어 붙어있다가 창문이 열린집 방안으로 날아드는 바람에 주민들은 크게 놀라 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고 박쥐가 병균을 옮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지난14일상오9시께 서울구로구오류동산15 오류산중턱에서 서울세곡국교6년 金수진군(13)이 소나무에 끈으로 목을 매 숨져있는것을 약수터에 산책나왔던 조옥순씨(38·구로구오류2동232)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군의 어머니 정신숙씨(41·노동·구로구개봉동70의12)에 따르면 金군은 부모가 아침 일찍 막노동판에 일을 나가면 두동생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등 집안일을 해왔는데 12일저녁 빨래를 하지않아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고하며 13일 학교에 가지않고 가출했다고 한다。

경찰은 金군이 가정이 빈곤한것을 비관하다가 꾸중을 듣고 충격, 자살한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10代들…캠핑 비용 마련하려고 百여만 금품털어

車 훔쳐 타고 해수욕장등 순회 바캉스 즐겨…

■사소한 시비끝에 失明

▲같은학교 하급생과 시비를 벌이던 중학생이 후배가 휘두른 흉기에 눈을 찔려 실명했다。

18일밤9시께 서울도봉구수유1동127앞 골목길에서 이동네 元영재씨(60)의 차남 載鎬군(14·S중2년)이 같은학교 하급생인 朴모군(13·S중1년)과 사소한 시비끝에 朴군이 휘두른 깨진 유리병에 눈과 가슴을 찔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했다。

載鎬군은 이날 형 종회군(17)을 찾아 나섰다가 朴군과 마주치자『왜 선배인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때리자 화가 난 朴군이 깨진 병을 주워들고 휘두른 것。朴군은 집으로 오던 載鎬군의 형 종회군이 이를 보고 말리자 종회군에게도 병을 휘둘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서울강서경찰서는 19일 吳모(18·술집 종업원)朴모(20·무직)군등 2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池모군(19·주거부정)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14일 하오2시20분께 서울강서구화곡동254의17 崔明植씨집 건넌방에 세든 金玉姬씨(22·여)방에 침입, 金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소리치면 죽인다』면서 장롱을 뒤져 시계2개(싯가 9만원)와 금목걸이 1개, 10만원권 가계수표 8장등 1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캠핑비용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

■殺人빚은 내기장기

▲내기장기를 두던 사람들이 서로 옆사람들에게 훈수를 받았다며 시비를 벌이던 끝에 살인까지 저질렀다。

18일하오4시반께 대구시북구침산2동 백연당 불당 옆대 전시장에서 한판에 5백원씩 걸고 내기장기를 두던 金수태씨(28·대구시서구본리동740의1)와 咸교종씨(52·대구시북구복현동423)가 옆사람들에게 훈수를 받았다며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金씨가 咸씨를 밀어 넘어뜨려 실신시켜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진탕으로 숨졌다。

경찰은 金씨를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는데『咸씨가 너무 떠다보니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른것 같다』고 하소연。

▲남의 차를 훔쳐타고 관광지와 해수욕장을 전전하다가 붙잡히게되자 차를 불태우고 집에 숨어있던 20대청년이 특수절도및·방화혐의로 구속됐다。

충남 서산경찰서에 잡힌 朴桂玉씨(22·충남 서산군서산읍 동문리184)는 지난 4월6일 자정께 서산읍, 읍내리 양유정 앞에서 번호를 알수없는 타이탄트럭을 훔쳐타고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까지 가서 길에 버리고 그옆에 세워둔 충남1가3307호 포니승용차(주인 崔홍남)를 다시 훔쳐타고 관광지와 해수욕장으로 다녔다는것。

그러나 범인 朴씨는 훔친 차로 지난 17일 하오7시40분께 연포해수욕장에 놀러갔다가 도난당한 승용차 주인의 친구인 유모씨(34·예산읍 주교리)가 연포파출소에『잃은차 같다』고 신고하자 이를 알아차리고 도주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서산군 팔봉면 양길리앞 도로변에서 전복되자 증거를 없애려고 차를 불태웠다는 것이다。

子女 외국유학보낸 父母찾아 金品터는 新種사기 늘어

在美동포 사칭 "선물 전해주겠다" 갈취

▲자녀를 외국에 유학보낸 부모를 찾아가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사건이 늘어나고있다。

지난14일 상오11시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629의61 李모씨(55·대구Y대교수)집에 재미동포2세를 자칭하는 20대 청년이 찾아와 미국 하버드대학에 유학중인 李씨의 아들에게 전해주겠다며 고추장·참깨·인삼2상자등을 포함, 모두 10만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는것。

李씨는 이날 찾아온 청년이 아들의 근황을 상세히 이야기해 주면서『선물용 인삼과 먹을 고추장등을 보내달라더라』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고 교통비에 쓰라고 1만원까지 주어 보냈는데 이날밤 때마침 전화를 걸어온 아들에게 확인했더니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정리 姜升遠기자>

海外토픽

술집도둑 만취돼 잡혀

술집에 침입한 도둑이 포도주 13병을 마신뒤 마루바닥에 곯아떨어져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에 인사불성인 채로 연행되었다고。

금년 50세인 술고래 데이비드·퓰라크는 폐점시간을 틈타 가게안으로 잠입한뒤 진열대의 계 5파운드를 안주삼아 포도주 13병을 거덜낸뒤 마룻바닥에 누워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의 절도죄를 입증시킬 확증확보를 위해 우선 그의 주변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빈 병들을 주운 후 그를 싣어 날랐다고。[런던]

墜落 앰뷸런스서 順産

물에 빠져 뒤집힌 앰뷸런스의 뒷자석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린이의 이야기。

뉴질랜드의 페메니아라는 부인은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가던중 노드·아일랜드 중부의 테 아와무투시 근처 빙판에서 앰뷸런스가 5m아래의 개울로 굴러 차체가 뒤집히면서 엔진부분이 물에 잠겼는데 앰뷸런스 운전사가 구원을 요청하러 간 사이 체중 2·3㎏의 여아를 순산, 산모와 어린이가 모두 건강하다는것。[웰]

女性에 대한 범죄 탄원

인도여성단체들은 최근 인도에서 강간이나 신부화형(火刑)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자 인디라·간디수상에게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

인도여성연맹은 전국여성33만명의 서명을 받은 이 탄원서에서 강간, 신부화형, 아내구타, 젊은 여성 인신매매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은 범죄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

이 단체는 희생자의 진술만으로 강간범을 처벌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것과 탐욕스러운 시집식구들이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은 신부를 불태워 죽이는 것을 막기위해 여성이 결혼10년내에 사망할 경우 사체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인도 내무성은 신부화형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뉴델리의 경우 지난해 11건이던 이같은 범죄건수가 올해는 이미 19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뉴]

개젖먹고 자란 比 꼬마

필리핀의 세살난 한 꼬마는 지난 1년간 개로부터 젖을 얻어 먹고 자란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 이 꼬마는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않고 있으나『개와 같은 짓을 약간 하고 있다』고 英字紙 저널이 보도。

조엘·사카리아스란 이 꼬마는 그동안 자신의 새끼들과 함께 젖을 빨려주던 이웃집의 개가 데리고 왔던것。

조엘군은 영양실조로 처음 입원했을때만 해도 개짖는 소리와같은 소리를 내고, 화가 났을 때마다 할퀴며 놀던 애들을 개처럼 물거나 할퀴더라고。

이웃들이 확인한바에 따르면 세탁부인 조엘군의 어머니가 집을 비울 때 조엘군이 자신의 울타리 뒤에 있는 이웃 개집에 찾아가 놀았을 것이라는 것。

그때마다 이웃집 개는 조엘군을 반겨맞아 귀여워 해주는 한편 젖에 놓도록하여 자신의 새끼와 함께 젖을 빨게 했다。

살림의 지혜

장마철 살림

무더운 장마철엔 의·식·주 전반에 걸쳐 주부들의 알뜰한 손길이 요긴할 때다。장마철 작은살림의 요령을 알아 본다。

[衣생활]

땀이 많이 나는 땀젖은 옷 그날 빨아야

장마철의 옷은 땀을 잘 흡수하고 열전도율이 좋은 면직·마직물로 만든것이 좋다。옷이 땀에 젖으면 통기성이 나빠지고 신체의 노폐물을 흡수하지 못해 눅눅해지고 기분도 나빠진다。또 땀에 젖은 옷을 1주일 이상 그대로 두면 누렇게 곰팡이도 핀다。때문에 땀에 젖은 옷은 반드시 그날그날 빨아서 바짝 말리는게 좋다。보통 성인이 자면서 흘리는 땀의 양이 30~50g、7시간 동안 자면 약 2백10g의 땀을 흘리게된다。그러므로 침구는 장마전에 여름것으로 깨끗이 손질해 놓는게 좋다。자외선이 강한 맑은날 낮12시부터 3시간정도 햇볕에 말리는게 좋다。

장마철엔 빨래말리기도 골칫거리。어린이가 있어 빨래가 많은 가정에선 목욕탕등에 줄을 매 빨래를 널고 석유난로를 피우면 한결 빨리 마른다。

[食생활]

주방용구 장마땐 청결

장마철은 세균번식이 용이한 때다。주방용구는 항상 청결해야하며 행주·도마·식기등은 여러개를 준비, 용도에 따라 쓰는게 좋다。행주는 쓴뒤엔 비눗물에 삶아 햇볕에 말려서 둔다。

도마와 칼은 사용후 끓는 물로 열탕소독을 하고 비스듬히 세워 물기를 제거한다。석물은 그때그때 구입, 오래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住생활]

배수구등 사전 점검을

장마가 오기전에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 막힌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낡은 홈통으로 물이 새거나 흙·이물등이 쌓여 있으면 홈통이 막혀 벽에 물이 스며들기 쉬우므로 미리 손질해둔다。

장마가 계속되면 옷·이불장까지 습기가 배 옷이나 이불이 눅눅해지므로 식구들이 집에 없는 낮시간등을 택해 아궁이에 불을 넣어 방을 덥히고 옷장·이불장을 열어 습기를 없앤다。옷장이나 이불장·신발장등엔 바싹 마른 신문지를 넣어도 한결 습기가 적어진다。

퀴즈正答 <제16회>

정	주	영	■	권	주	가
부	■	화	승	총	■	정
미	풍	■	소	■	주	부
■	경	마	■	유	택	■
이	화	■	헌	■	난	초
민	■	다	혈	질	■	보
수	밀	도	■	투	자	자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광고문의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롤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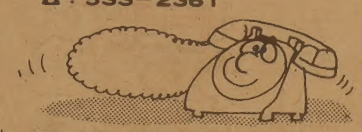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충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헌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45-6792 (Mr. 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 –오후6시
금 : 오전8시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매니저 구함.
조건 : Stock인수. 주매상 : $9,000이상.
전화 : 881–4007 (Mr. 윤)

한국음식에 조예가 있으시고 약간의 중국음식도 하실수 있는분(Full Time, 남·녀관계 없음)
전화 : 284–5124

미싱 자수사 구함 – Juki Z 자수미싱으로 고급테이블, 침대 Cover에 자수하고 있음. Peace work 환영함.
700 Wilson Ave. Downsview (Dufferin & Wilson)

가게맡아서 하실분 구함(보증금 약간 필요)
매매도 가능. 오타와 지역.
전화 : 1–613–238–3837

Full Time Cashier 구함 (야간 근무)
전화: 691–6768 오전10시~밤10시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 분
전화 : 439–6428, 431–7168 (Mrs. 김)

구직

다운타운에 가까운 곳 또는 West Area
출퇴근하며 아기 성심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전화 : 423–3114 (Mrs. 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구혼

결혼상담, 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278–3975

Peterboro.근교 호수에 위치한 아름다운 Cottage Lot. (Water Front)을 급매합니다.
전화 : 929–9849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Variety Store for Sale (Hwy 10×Dundas)
주6일 Open. 주매상 : $4,300
Video Machine에서 월 최저 $1,000 보장.
리스 : 2년 + 5년. 렌트 : $750
가격 : 5만 + 스탁 (Mortgage 가능)
전화 : 276–3266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Variety Store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 바람)
주매상 : $9,000이상. 361 Carrville Rd.
Thornhill, ont., Hill Crest Mall 옆길.

Vancouver Downtown 좋은 위치.
단골 고객이 많은 성업중인 Discount옷가게. 건강상 매매.
년매상 : $180,000. 아스킹 : $39,000
리 스 : 2년+3년 옵션.
주6일 영업(10:00 a.m~6:00 p.m)
전화 : 239–2193

Pizza Take Out & Delivery (Downtown Area)
매우 성업중임. 346 Dundas St. E.
Ask for Domenic or Luigi

전망 밝은 모텔 매매
현대식 45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토론토에서 한시간거리에 상업도시에 위치. 10%의 Mortgage
Tom Szymanski
Yanka Realty Inc. 537–4156 or 755–9080

Variety Store (Rogers & Oakwood)
주매상 : $3,500
Patrick Ho. Real Estate. Jack 593–8967

한 · 영 사무용 Type Writer 구함.
Ball Type이면 더욱 좋음.
전화 : 499–3686 (오후 6시이후 연락바람)

Grocery Store (Montreal 지역)
주매상 : $6,000(포도주, Beer, 화초등도 취급)
아스킹 : $63,000 + Stock. 리스 : 3년 + 5년
이층에 5 Bed Rm.이 있으며 뒷뜰에 정원이 있는 일급주택가에 자리한 살림집도 타협에 의해 Rent 가능함.
전화 : 1–514–674–6845 (Mr. 박)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Variety Store
주매상 : $5,000이상. 리스 : 5년 + 5년
361 Windermere Ave. (Jane & B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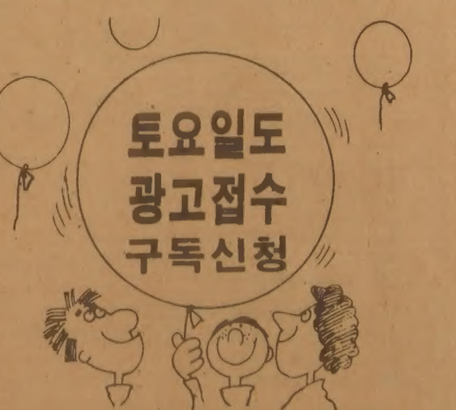
Wallpaper & Paint Business for Sale
20년간 성업중인 최고의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
위치 : Kennedy & Lawrence. 아스킹 : $55,000
(매우 바쁘고, 확장 번창하는 Plaza안에 있음)
Store는 Air Con. 장치가 되어있으며 보기에도 깨끗함.
전화 : 266–3151 (Grace Becker) Royal Trust CORP. OF CANADA REALTOR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 ~ $3,300
전화 : 699–4804

Glass Shelf. 카운터등 (Gift Shop용)
전화 : 425–9839

Pharmacy & Variety Store for Sale
원하면 건물도 매매 가능함. 주매상 : $10,000
(투자가치가 좋음) 서부지역. 전화 : 781–2560 (Sarkis)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한국일보광고부

가게렌트

성업중인 Grocery Corner Store Business for Rent.
안전하고 발전성있는 투자.(Franchise)
전화 : 259–2123

아파트렌트

One Bed Room 아파트 세놓읍니다.
$325/M. College & Dovercourt
전화 : 531–6183

방세놓습니다. 노인부부 환영함.
Pape 써브웨이에서 1블럭거리
전화 : 282–0236, 466–3764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순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쉐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이 성 몽)

실 존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illegible]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신지)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 [illegible]
• [illegible]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어×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촬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자 개 칼 라 – 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illegible] 각종 생선.
▲싱싱한 회 [illegible]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